



문화매일신문



제 1521호

2024 / 1 / 22 / Mon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다보스포럼 참석한 김동연,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위한 대책,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김동연, 17일 다보스포럼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주제 세션 참여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럼 개막 사흘째를 맞아 기후위기와 관련한 세션에 참가해 글로벌 기업 대표, 각 정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오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뮌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이후에는 발드후스호텔에서 열린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했다.

두 세션 모두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해 토론 내용만 공개될 뿐 발언자와 참석자의 신분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김 지사는 이날 두 개 세션에서 기후 변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후변화 대응력 차이에 발생하는 기업, 사람, 국가 간 격차 해소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탄소절감을 하려면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중앙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정책도 함께 바뀐다”며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정부가 생활밀착형, 일관성 있는 탄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와 같이 기후변화 역시 대응 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

이드(기후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환경이 파괴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입법을 통해 규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도 김 지사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의 공평한 활용과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배려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경기도의 RE100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날 세션에는 유니레버, 아스트라제네카, 지멘스 등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기업, 환경기술 대표기업 50여 개 CEO들과 유럽, 아프리카 국가의 장관들이 참석했다.

세션 참가와 함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외교활동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이날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Davos Congress Center)에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국제에너지기구의 지방정부 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사무총장의 방문 때 경기도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은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들이 도약하고 이익을 창출할 좋은 기회이고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에너지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기후정상화에 대한 김 지사의 좋은 제안에 감사한다. 적극 검토할 것이며, 4월 방문 때 경기도를 방문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 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서 김동연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김동연 지사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화제가 됐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밤 11시 30분(한국 시각 오전 7시 30분)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저를 초청하는 유니콘기업(거대신생기업) 세션을 만들었다. 이게 안내 홈페이지”라며 세

24년 지역주도형 「경상북도 대학 대전환」 힘찬 출발!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 수립 위한 일반대·전문대 실무협의회 개최
지역주도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협력적 동반자관계 지속 강화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구미대학교, 오산대학교 등에서 도 교육협력관, 경상북도 RISE센터, 33개 대학 관계자 등 각각 40~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실무협의회’를 전문대, 일반대 분과별로 개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주도형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대학정책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중앙정부에 지방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정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는 지방대학 시대’ 아래 지역주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RISE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는 지난해 3월 8일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된 이래 경북형 RISE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도내 33개 대학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지역협업위원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면서 대학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왔다.

이날 경상북도 RISE 전문대 실무협의회에서는 대학중심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공적인 경북 RISE체계 추진을 위해 도의 핵심목표를 공유하며

‘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RISE체계 추진에 대비해 대학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목표 및 관리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도는 대학혁신 지원기관인 경상북도 RISE센터와 함께 교육부의 RISE체계 추진일정에 맞춰 금년 12월말까지 경북도 RISE 계획에 대한 지역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산업 기반 특성화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현안 분석 및 특성화전략 마련과 고등교육 특화지역 지정 등을 통한 규제특례 적용 등 다양한 대학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학관계자들은 지역혁신의 주제로 대학별강점을 살려 지역주도형 인재양성, 자산형 연 협력 생태계 구축, 평생직업교육 혁신, 기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강한 협력의지를 보여주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아이디어산업 주도 K-대학 대전환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대학혁신은 핵심과제”라며 “지역과 대학간 협력적·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성공적인 경북형 RISE체계 준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도민 체감형 에너지복지 온힘 전라남도 안전 편의시설 확충·취약계층 지원 등 15개 사업에 880억

전라남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시설개선 및 설치, 사용료 지원 등 에너지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비용이 지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안전사고에 우선 대응하기 위해 ▲LPG용기 고무소스 교체사업 17억 6천만 원(6천356가구) ▲가스 안전장치(타이머) 설치사업 3억 3천만 원(5천500가구)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10억 원(891가구)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2천30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설치사업 1억 7천만 원(3천 개소) 등을 추진한다.

평소 안전관리가 어려웠던 고령층 가구 등의 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과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민의 생활 편의성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430억 원(19개 시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122억 원(22개 마을)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16억 원(1천280가구)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에너지 환경 개선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20억 원(4만 8천741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1억 7천만 원(266가구) ▲연탄쿠폰 지원 13억 3천만 원(2천436가구) ▲중유·LPG 난방비 지원 138억 7천만 원(3만 1천 926가구)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등 에너지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이달 19일 견본주택 개관

광교신도시 생활권· 광교산 등산로 · 광교저수지 인접
수원 최초 진화형 세대창고 ‘비스포크 스토리지’ 도입
1월 29일 특별공급... 같은 달 30일 1순위 · 31일 2순위 순 청약 진행

연무동북한개발(주) (대표 : 김일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을 이달 1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지하 1층 - 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 - 98㎡ 총 28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며, 시공사는 HL 디앤아이한라다.

분양 일정은 1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화) 1순위 · 31일(수)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원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 6일(화)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8일(일) ~ 20일(화) 까지 3일 간 진행된다.

단지가 건립되는 사업지는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다. 현재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각종 주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완성형 주거타운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광교신도시의 생활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광고중앙역 중심상권은 물론 각종 유통시설 및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 이 인근에 있고, 광고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성 또한 양호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구한다. 단지 주변으로 산과 호수 · 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고저수지를 비롯해, 광고공원과 광고산 등산로의 출입에 위치해 산책과 등산 등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연암공원 · 광고중앙공원 · 원천호수 · 신대호수 등도 인근에 있다. 이밖에, 화서

역 인근의 KT&G 옛 수원 연초제조창 부지에는 ‘스타필드 수원’의 개장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높은 미래가치도 지니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개통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동탄인덕원선(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일대의 교통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연무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입지가치 못잖은 상품성도 갖췄다. 수원 최초로 각 세대별 각 세대별 현관 앞 공용공간에는 진화형 세대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 공간이 있어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쾌적한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4.6m~4.8m의 광폭거실 및 전 세대에 2.5m의 우물 천정고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되며, 4베이 3룸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했다. 이밖에, 2면 · 3면 개방형 평면설계로 넓은 공간 구성에 주력했다.

각종 편의시설도 잘 갖췄다. 단지 저층

서광교 단 하나의 프리미엄 주거복합단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월 OPEN(예정) 1577-7549

부에는 스트리트형 단지내 상가와 입주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조성된다. 휘트니스장을 비롯해, 스카이프장 · 카페테리아 등 입주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도 단지 곳곳에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는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공원 · 광고저수지 등 녹지공간도 가까운 단지여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 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한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브랜드 단지로 주변의 개발호재와 진화형 세대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 등 뛰어난 상품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5번지에 마련된다.

김범상/기자

경북도의회 2023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4년 의정운영 방향 발표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이끌어 2024년, 불안함 없는 든든한 미래 경북 도민과 함께 만들 것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운영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 “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 데 의정역량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 새로운 성장축 확보해 경제력 탄탄한 지방시대 초석 마련
2023년 지역 최대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

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 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한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 지방소멸에 대응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제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꼬바일 애플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 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 강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 활발한 소통을 통한 대의기관 역할 강화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하여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되어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광역의회 유일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신뢰받는 지방시대 모범
배한철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

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특히,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 제공, 갑질, 사익추구, 계약업체 선정 시 관여 등을 하지 않아 직무관련자, 전문가, 지역주민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2024년은 지방시대의 걸림길, 도민과 함께 성공가능도 달릴 것

경북도의회는 2024년 지방시대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드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이천시의회,

‘설성면·부발읍 주민과의 대화’로 소통 이어

이천시의회(의장 김하식)가 설성면과 부발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과 지역의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는 설성면에 김하식 의장과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 임진모 의원, 부발읍에는 김하식 의장과 김재현 부의장을 비롯해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 임진모 의원이 참석했다.

김하식 의장은 “설성면과 부발읍에서 제시해주시는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길이 열릴 것”이라며 “모든 바람

들이 이루어지도록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과의 대화는 이천시 주관으로 2월 1일까지 진행되며 1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갑작스러운 새해 인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을 이어가며 민생을 챙길 예정이다.

김병삼/기자



포항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최

김성조, 김은주 의원 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의는 19일 오전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6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백인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차전지와 수소,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왔다”며 “2024년에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 큰 결실을 맺고 비약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한 사면 청원 동의를 부탁했고, 김은주 의원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구명운동에 행정위원회에 대해 포항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본회의에서는 박재관 자치행정실장

윤태용/기자

울산시의회, 비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교통관리센터 운영실태 점검 및 시설 견학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비회기 중 교통관리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신북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그간의 교통 흐름의 지.정체 및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 관리 전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방문 현장에는 문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중훈, 홍유준, 김수중, 백현조 위원들과 교통국장, 교통기획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통상황실, 교통통제실, 교통방송실, 120 해물이콜센터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교통관리센터는 교통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신호운행 및 교통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교통 상황과 버스 운행정보 등을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통 체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교통 정보는 시민들의 안전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교통 정보 제공으로 선진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통관리센터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년 4월에 개관하여 지상 4층으로 운영 중이다.

황규진/기자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와 전세사기 포함 주거정책 간담회 열어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7일 15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와 양국 주거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덴마크 레알-다니아 주택경제지식센터는 2008년 덴마크 주택시장을 강타한 주택 위기를 계기로 2009년 설립하여 덴마크 미래 주택 수요 모델링 도구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식경제센터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 미켈 하르버 뢰러(Michael Harboe Moeller) 애널리스트, 안나 헤르츠베르(Anna Herzberg) 애널리스트 및 주한 덴마크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창조도시과장과 부산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주요 주거정책을 소개했다.

간담회에서는 양국 간 ▲주거정책,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공유했고, 지식센터 관계자는 한국방문 주 목적인 전세제도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 정책, 원도심 인구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산진구 일원 “새들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서지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까지도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피해에 관한 외부의 객관적 시각과 해결 방안에 관해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전국 최초로 피해 유형에 대해 파악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지연 의원은 “작년 11월 기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 규모는 1,393건, 약 1,391억원이고 피해 결정자의 83%는 청년층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소위 말하면 광동전세, 무자본 갭투기가 압도적 1위이다. 피해 대상과 피해 유형이 분명한 만큼 전세라는 제도의 허점과 계약상 발생 하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해지는 시점

이다.”라며 전세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및 전세사기 패키지 조례 입법 등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그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에게 현장감 있게 상세히 설명했다.

커트 릴리그린(Curt Liliegreen) 프로젝트 디렉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거정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한국의 전세 임대제도와 사회취약계층 임대주택 등은 덴마크 부동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양국 간 정책교류가 지속됐으면 한

다.”라고 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서지연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2023년 세계행복지수 2위인 덴마크 주거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을 부산시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덴마크 등 선진국과 주거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해 2월에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 센터와 ‘부산 창업생태계 방향 공유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국 기관과 함께 부산의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발행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제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경 제 부: 내선 (114)	오 제 비 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로 뚫는다

입주 희망업체 찾아 사전 의견 청취 및 계획 조율

여주시는 2024년 1월 17일 강천 이호 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성우모터를 찾아가 단지계획 초기부터 의견을 청취, 기업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등 여주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실수요자인 업체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

경기 동부권의 신흥산업 거점도시로 거듭나고자 추진 중인 16개 신규 산업단지 중 강천 이호 일반산업단지는 약 58,280㎡로 조성을 계획, 지난 2023년 5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까지 수도권경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 토지 및 지장을 손실 보상 협의와 함께 2025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희망서 접수 결과 8개 기업이 희망의사를 밝혀 추가 단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여주 걸은지구 일반산업단지도 곧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여주시장은 "기업에 직접 찾아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업체가 원하는 산업단지 형태가 그려진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통하며 같이 계획하는 여주만의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을 위해 향후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산업단지팀로 연락하여 방문 요청하면 찾아가서 협업하는 사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지난 16일, 이천설봉하늘농원에서 쌀 10kg 30포, 이천계기사에서 성인용 위생용품 250박스(1박스당 60개입), 이천시영남향우회에서 성금 100만원, 이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성금 300만원을 '행복한동행'에 전

달했다. 이천설봉하늘농원은 2023년 중리동에 고구마 30박스(박스당 5kg), 무204kg을 기탁한데 이어 행복한동행에 쌀10kg 30포를 기탁했다. 깨끗한 이천 만들기 '클린이천' 봉사에도

이천시 기업, 단체들의 이웃 돕기 실천

참여하고 있는 김평재 대표는 "한사람의 후원으로도 이천에 행복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천계기사는 1988년에 설립된 질량계량기 제조업체로 2013년부터 꾸준히 이웃돕기 기탁을 했으며 매년 겨울철에 연탄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들의 난방을 책임졌다. 올해는 어려운 이웃들이 연탄 외 필요한 물품을 무엇일지 고민하다 성인용 위생용품 25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천시영남향우회는 이천시 증포동에 위치한 영남지역인들의 향우회에 고향은 다르지만 이천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행복한동행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이천시지역화

합발전협의회에 소속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천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2009년에 설립된 친환경 농가들의 단체로 2016년부터 매년 이웃돕기 기탁을 했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성금 300만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작물을 납품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이천에서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천시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고양시, 물복지 향상... 안전·깨끗한 수돗물 공급한다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



고양특례시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상수도 공급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노후 상수도관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가 인정한 수질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수돗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의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수관로 복선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안정적 수도 공급체계 구축 총력

물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는 세대에는 개량 공사 시 주택 유형, 면적별로 표준 공사비의 30~90%를 지원한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130㎡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총 71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약 8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자동 메주골 마을에는 상수도 급수 시설이 마련됐다. 지난해 5월부터 40여 년 간 지하수를 식수 사용해 왔던 8가구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사 비용은 마을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인 노후관 교체공사와 연계해 지원했고, 도비 보조 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일부 지원으로 마련됐다.

한편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 투자비 확보와 낮은 요금 현실화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은 상수도 요금 10.2%, 하수도 요금 10%다. 가정용의 경우 세계급수미터(m³) 당 545원에서 601원,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의 경우 세계급수미터(m³) 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액은 노후된 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해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인증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안전 수돗물 품질 보증

고양특례시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은 지난 2008년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증을 받은 공인분석기관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먹는 물 검사는 채수부터 수질 분석, 수질검사성적서 발급까지 전문 기술 인력이 일괄 진행한다. 시는 매월 지역 내 정수장 3개소, 배수지 16개소, 5개 노후관과 103개 수도꼭지 등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약수터 13개소, 중점 관리지역 9개소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수질검사는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 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채수, 검사를 진행하고 20일 내로 결과를 알려준다.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물사랑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기술 인력의 수질 검사 능력을 높이고,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자원협회(ERA) 주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국제공인 수련도 평가'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국내 수련도 평가'를 해마다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환경부 주관 '2023년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400억 원 이상 징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271억 원,세외수입 체납액134억 원 등405억 원 징수

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듯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체납액 총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2024년 신규 사업에 '카카오톡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안내문

발송 비용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 명의변경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 3개기관)과 협력해 보유 증권계좌를 특정한 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대포차 추적 등을 하고,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제1기 시민디자인단 50명 내외 참가자 모집

내달 18일까지 온라인 접수... 연말까지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등 진행 예정

용인특례시는 디자인을 활용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는 데 참여할 '제1기 용인특례시 시민디자인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제1기 시민디자인단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이며 내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자인과 브랜드 관련 재학생과 졸업자, 공공 디자인프로젝트나 시민참여 프로젝트 운영경험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모두 가능하다.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구글 설문지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평가에서는 우대사항, 지원동기, 활동 가능지역 거주 여부, 의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디자인단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공공디자인 워크숍, 분임활동 등을 진행하고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제1기 시민디자인단 활동 주제는 도시브랜드 분야로,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공공디자인 인식과 역량 강화, 필요한 신규사업 발굴, 사업 사후관리 등 디자인·브랜드 전문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디자인단에 선정돼 워크숍,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워크숍과 수당을 지급하고, 우수활동자의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뜻 있는 시민들이 시민디자인단에 참여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기획·개발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과 함께 공공디자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나도 유튜브 대뷔!

용인특례시 미디어센터 운영안내

대상 용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운영시간 화~금(09:00 ~ 21:00), 토~일(09:00 ~ 18:00)
※ 휴업일 및 인성공휴일 휴업

지원내용 미디어 교육·채널, 공간·장비 대여 등 제공

이용방법 교육 대안 신청 - 용인미디어센터(https://www.yimc.or.kr)

미디어 교육

- 유튜브 방송, 숏츠 제작
- 영상편집, 스마트폰 사용법
- 포토샵, 드림캐스트레이터
- 시·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 체험

- VR, AR 체험 및 미디어
- 장비 실습
- 크라우드 펀딩
- PD 체험

공간·장비 대여

- 1인 미디어제작실(2실)
- 스튜디오(대, 중, 소)
- 회의실(3실), 교육실(1실) 등
- 공간 및 장비 대여

문의전화 031-653-6503~7 | 오시는 길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09

노후 옥내급수관에서 발생하는 녹

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받으세요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면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2023.7.1.~2023.12.31.)과 2기분(2024.1.1.~2024.6.30.)에 대해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서울 편입' 시민 의견 수렴해 차분하게 대응할 것"



하남시는 18일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편입과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오후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편입 이슈 대응 방안 △성남골프장 주요 진행 상황 △위례신사선 추진현황 등 지역 현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이 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위례신도시 주민들

의 간절함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위례신도시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을 비롯해 3호선과 9호선 용역, 그린벨트 해제 등이 경기도와 연계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이용 의원과 최중윤 의원이께서 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법안이 행정안전부로 전달돼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라며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차분하게 분위기나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는 성남골프장 주요 진행 상황과 관련해 성남골프장은 현재와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우리는 가능한 우리시가 인수해서 골프장으로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례신사선 추진현황과 관련해선 "현재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상반기 중 경기도와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초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인 '똑버스'를 활용해 감일신도시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학교 진학 학군 조정 등에 따라 일부 학생이 감일백제중으로 진학하게 되면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우리는는 감일신도시로 등

하교하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해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똑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및 환산-초이 간 도로개설 진행 상황'에 대해 "초이로 126번길 2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환산-초이 간 도로개설은 올해 실시계획 인가가 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초이동 송림마을을 관통하는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의 방음벽 높이가 2m로 설치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택과의 거리가 100m에 불과해 최소 6m 이상의 높이로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도와달라'는 주민 요청에 대해서도 소음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방음벽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해서 (설치) 한다고 한 만큼 관심을 갖고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삼/기자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돕는다...디딤돌 사업공동체 31일까지 모집

최대호 시장 "능력과 꿈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하겠다"



▶ 신청기간: 2024. 1. 31.(수)까지

▶ 사업내용

: 강사형·창업형 사업공동체 공간제공 및 교육, 수요처연계 등

▶ 접수문의

: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070-4048-5677)



안양시가 경력보유여성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공동체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공동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5인 이상(안양시 거주자 포함)이 협동조합 설립 등 취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시는 취업과 창업의 의지가 높은 사업공동체(최대 6곳)를 선정 및 발굴해 학습공간,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실습 재료비, 실습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강사형 사업공동체(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창업형 사업공동체(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 목적의 동아리) 등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공동체는 이달 3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공동체 운영계획서, 회원명부 등을 작성해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서류심사 및 PPT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자세한 심사 일정은 사업공동체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력보유여성 이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대상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에 6개 사업공동체(동아리) 4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3명이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시, 'CES 2024'에서 관내 기업 1455억 계약·2748억 상담 성과

첫 단독관 CES 성남관 성공적 운영... 작년 대비 3배로 증가한 상담 실적 기록

성남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첫 단독관으로 선보인 성남관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약액은 약 1455억 원(1억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수출 상담액은 전년도 대비 3배로 증가한 2748억 원(2억510만 달러)을 기록해, 추가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CES 2024'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올해 관람객 수는 13만 5000여 명으로 전년도 11만5000명 대비 17% 증가했고,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해 관내 중소·벤처기업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베네시안 엑스포에 조성된 278㎡ 규모의 전시공간에서 성남기업들의 제품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이 전시 기간 내내 활발하게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단독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와 관내 기업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남관이 누구나 인정하는 전시 공간이자, 성남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성남관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제이엔엘은 CES 전시회 현장에서 멕시코 유통기업인 L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샘플 구매 및 추후 제품 구매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다. 또한 원투씨엔은 기술 관련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를 프랑스의 고객관계관리 서비스 기업인 A사와 체결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성남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의 실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외 전시 및 해외 마케팅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적으로 글로벌 도시로서 성남시 위상 제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마케팅 교육 및 사전교육 ▲어워드 신청 및 컨설팅 지원 ▲어워드 참가비용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항공비 지원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현장 통역 지원과 홍보 지원 등 해외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대표단은 18일 오전 귀국하면서 CES 2024 성남관 개관식 참가 및 미국 폴러턴, 오



로라 시 등과 경제협력 강화, 피츠버그 카네기멜런대 교류 협력을 위한 9박 12일간의 미국 출장을 마무리했다.

신 시장은 미국 출장 기간 자매도시인 콜로라도주 오로라시를 방문해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을 만나 양도시 교류 확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의 카네기멜런대를 방문해 성남 판교에

이 대학 ETC대학원 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성남시 대표단은 방미 중, 폐기된 항공시설 제조공장을 재생해 시장으로 탈바꿈시킨 오로라시의 스탠리 마켓플레이스와 뉴욕의 하이라인파크 및 첼시마켓 등을 방문해 성남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을 위한 현지 벤치마킹 활동을 벌였다.

김병삼/기자

고려 태조왕건부터 이어져온 대게의 본고장 '영덕' 천년의 맛! 영덕대게



울진군은 지난 16일(화) 11시,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주재기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영욱 홍보팀장의 사회로 참가 내빈소개, 순병복 울진군수 인사말에 지난 2023년 업무추진 성과와 2024년 업무추진방향 설명 후,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그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성과도 많았고 향후 할 일도 많다"고 하면서 특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기에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업무 성과와 향후 2024년 업무추진방향을 슬라이드를 통해 직접 언론인들에게 자신있게 브리핑 함으로써 그의 울진군 미래 비전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과없이 보여 줬, 참석한 언론인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호평을 이끌어 냈다.

이에 본지는 순병복 울진군수가 기자간담회시 발표한 지난 2023년 주요 성과와 2024년 새해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새해 특집기사로 준비했다.

▲울진군이 처한 현 여건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된다는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도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지금은 IMF이후, 가장 힘든 시기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기로 장기불황의 위기에 있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 강화에 따른 지방 교부세가 지난 2022년 3,411억원, 2023년 2,727억원, 금년 새해는 2,711억 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45.0%, 경북 25.3%, 경북 중, 구미시 27.57%, 포항시 25.39%, 봉화군 6.24%에 비해 울진군은 10.89%로,

652억원에 세입세출예산총액 5,570억원으로 2024년 재정자립도는 약 11.7% 수준으로 여전히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을 전망이다.

또 울진군의 인구문제는 19세 이하가 12.2% 인 것에 비해, 65세 이상은 31.1%(65~74세 15.3%, 75세 이상 15.8%)로 심각한 중고령 사회인데다, 저출산으로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매년 사망 643명, 출생은 178명에 불과하다. 특히, 금강송면, 기성면, 온정면은 출생이 全無하고, 평해읍과 매화면은 출생아가 4명 미만으로 최소행정단위 유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한편, 인접지방자치단체인 영양·봉화군은 지방소멸극복을 위해 범군민차원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고, 의성·구미군은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신공항 유치를 결정해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울진군의 기업유치 여건은 평해농공단지 분양률 65%, 죽변 농공단지 16.2%로 당면 농공단지 사업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상황에 놓여 있다.

잘알다시피, 이곳 단지에 공짜로 살려면 모르지만, 사업을 하려면 적자

가 되니, 들어오지 않기에 이들이 살 수 있는 방편이 마련돼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기에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CHANCE(기회)」, 「CHANGE(변화)」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역경기를 살리고, 인구유입으로 소멸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 취재진은 지난 2023년 울진군의 눈부신 노력과 성장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새해 2024년 울진군의 균형방향을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를 들여다 봤다. 울진군의 2024

순병복 울진군수 신년기자간담회

년 균형방향을 Key는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확보이다.

울진군 백년대계를 위한 성장동력이 될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와 신항울3·4호기, 신한울1호기,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순병복 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군민모두가 합심해, 우리 눈앞에 놓인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울진군이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한울3·4호기는 2033년까지 10년간 약 11조 7천억원을 투입, 연인원 530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기간과 가동 60년동안 2조원의 지원금 발생의 기대효과를 가져오며, 지역 업체 참여를 제도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갈 계획이다.

▲그리고 신한울 1호기는 울진군 단일 취목세 납부 건이 역대 최대규모인 462억원이 되는 등 세수증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또한 신한울 1호기

그리고 가장 깨끗한 공기와 최고 수준의 체육시설을 갖춘 찾고 싶은 스포츠메카 조성을 위해 최상급 시설의 울진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고,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를 유치하며,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은 특화먹거리 단지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로 시장경제를 만들고, 농업의



이러한 울진군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0년 뒤 울진군을 먹여 살리게 될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2022년 7월 원자력 전기를 이용한 국가산업단지 건설 기초 수립, 10월 정부 제안, 2023년 3월 후보지 확정, 6월 경북도 국가산업 협회 MOU 체결,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진행했고, 2024년 3월~6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우선 반영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 역량을 모아가고 있다.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는 단순히 울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만이 아닌 청정수소를 통해 탄소중립시대 에너지 생산 자립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수원에서 발생한 전기를 바로 보내줄 수 있도록 2025년 말 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으로 국내 9개 대기업들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곳 울진에서 2026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돼도록 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시말해서, 수소산업을 위한 일은 정부가 한수원, 한전 등을 시켜 ppa 제도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수원은 울진이 실증단지를 만들어 주고 이곳에서 수소 산업을 이끌고 가도록 강력한 메시지가 내려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언론이 널리 홍보해 줘,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평해 농공단지를 비롯한 빈 단지에 들어 오게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효과로 군민 전기요금 지원 인상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또한, 울진 변영의 시대를 앞당기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따라 영덕-삼척 간 고속도로를 연결(남북 10축),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026~2030)에 따라 소천면에서 울진읍에 이르는 국도 36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따라 사산시에서 울진에 이르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등, 군의 광역교통망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예비타당성 검토에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울진 변영을 위한 울진관광 1천만 시대를 준비를 위해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 차별화 된 명품 관광지 개발, 스포츠 관광도시를 조성해, 인근 지역 관광객이 울진으로 올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의 거점인 '사계절 선 리조트'를 만들고, 죽변항, 염전 다리 등 특별 야간 경관 개선, 자연숲 캠핑장 등 특화된 머무는 공간 조성, 한반도 횡단숲길 동서트레일 조성 등 친체의 관광자원을 명품 관광 자원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울진에 없는 문화 축제를 위해 평해 '남대천 단오 축제'를 전국규모 문화축제로 육성 하고, 죽변 해안스카이라일의 문제점을 보완, 양쪽 다 운행하도록 하며, 연호공원 등에 전국 최고의 황토길 걷기 명소를 만드는 등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발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화,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고령화 한계를 극복,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등 미래성장 산업화와 유통 부문 효율화, 전략품목 육성/규모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 등 농업의 첨단화·기계화를 통한 농업의 대전환을 이룩하며, 죽변 수산물유통 복합 센터 준공 등 유통 기능 개선, 어촌활력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 면세유 지원 혜택을 경영부담을 감소시켜 물류대혁신을 통한 어업의 대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국·도립기관 유치, 공공주도 주민참여형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경제임업으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돈이 되는 산림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등 순병복 군수는 "울진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어업·상공업에 조사하는 군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아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쟁력 있는

울진형 산업기반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울진군탄소중립실천우수마을 시범 사업을 운영해 탄소중립 사회 발판 마련, 전기요금 확대 지원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월별 지구도시 개발 사업 추진 등, 생활기반 창출을 지속, 일상보호재난보호위험개선 등 선제적 재난대응을 하도록 하기위해 순병복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원칙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감동을 주는 복지구현으로 약자복지 강화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2023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1,399억원을 복지예산에 편성했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2024년 새해에는 출산부터 돌봄까지, 여성·가족 복지, 장애인 재활과 자립 의지 지원, 어르신 복지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순병복 군수는 "저 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소득 불균형 등 사회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군정이 책임지는 복지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섬김행정 실현을 위해 군민 섬김데이 운영, 군수 직통문자 민원 창구 개설, 먼저 인사하기 정착, 적극적인 실행동기 부여하는 등 순병복 군수는 "군민을 위한 가치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일하는 수준과 방식을 높이는 군정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울진군은 새롭게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비상 해야 한다. 순병복 군수는 "울진군이 향후 살길은 이곳이 타 지자체보다 원자력수소국가산업 단지를 유치할 기본적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어 반드시 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취재진이 바라봐도 울진군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울진군에 원자력수소국가산업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이미 준비된 평해·죽변 농공단지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절감된 경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

소국가산업단지가 이번 3~6월경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우선 선정돼, 울진군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신성장동력을 통한 과감한 혁신으로 지역경기를 살리므로 소멸위기를 극복해 탄탄 울진군으로 힘차게 도약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윤군수/기자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끝장토론

그간 저출생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등 균형발전 실패와 닮아 지방보다 5배 비싼 서울아파트, 지방으로 인구분산이 결혼과 출산 쉽게 할 것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실험 과감하게 시도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8일(목),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차원의 저출생 대책, 무늬만 저출생 대책

그간 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상북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

괄적 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저출생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와 닮아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띠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 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저출생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가족여가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종교문화 행사 지원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히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고 효과성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3차 기본계획'에도 고성장 기업에 대한 R&D와 대학에 대한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 인과관계가 약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간 국가균형발전도 연간 5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수도권에 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실행력 없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고치지 않는 한 해답은 없다"라고 주장해

◆ 지방보다 5배 비싼 서울아파트! 결혼도 힘들고 아이낳기도 두려워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자금,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9,490만원이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억 6,557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의 가격 차이는 10억원이 넘고 5배나 가까이 차이나는.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연금생심이다. 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자금, 안정적인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자금, 안정적인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경북도, 전 직원이 참여 열흘넘게 브레인스토밍, 266개 아이디어 도출

이날 경상북도 업무보고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자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공동체 속에서 아이돌봄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제안

업무보고에서 266개의 과제 중 대표적인 10개 과제가 발표됐는데,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보고됐다.

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

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적 지원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되었다.

이철우 지사는 보금자리 정책과 완전돌봄 정책을 한국에 집중투자하여 국가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을 제시했고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저출생 극복 국민운동'이 되어야

이 지사는 저출생은 우리나라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경쟁사회의 로 인해 발생한 역사가 응축된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단위에서부터 근면과 자조의 정신을 심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회복한 경험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경북연구원과 함께 별도의 팀을 구성해 연구하고 경상북도에서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운동본부를 구성해 국가전체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 국가차원의 저출생의 해법 지방에서 찾아야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북이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 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 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 개시

22일부터 인터파크 티켓판매처,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입장권 '온라인 판매' 개시 5개 등급 좌석/휠체어석 등 세선에 따라 가격 다양 국내 개최 첫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선수들 모기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

한국탁구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가 22일부터 인터파크 티켓판매처에서 판매되며 예매가 가능하다.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D-30일을 막 지남 시점인 오늘 22일부터 남녀단체전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입장권은 백스코 초피홀(메인경기장), 루피홀(제2경기장) Day/Night 세션별 입장권으로 구분. Day 세션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경기, Night 세션은 오후 5시와 8시 경기 관람권이다. 단, 대회 9일차(2월 24일) 남자 결승 2경기, 여자 결승 1경기는 구분 없이 Daily 세션으로 통합, 남자 결승 1경기가 있는 마지막 날(25일)도 하나의 세션(Night)이다.

입장권 가격은 골드석(A, B), 1, 2, 3 등석 등 총 5등급과 휠체어석으로 나뉘는 좌석과 세선에 따라 다양하다. 2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조별 라운드, 개막식인 17일, 본선 토너먼트 1회전과 남녀 16강전이 열리는 2월 21일, 본격적인 순위 경쟁이 시작되는 2월 22일 이후 등 각 단계별 세션 가격이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남자결승이 열리는 마지막 날은 골드석 A 29만원, 골드석 B 25만원, 1등석 9만원, 2등석과 휠체어석 7만원, 3등석이 5만원이다.

조직위는 프레젠틱 파트너 BNK부산은행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팬들의 관전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할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단은 BNK부산은행의 선불카드 오프라인을 이용해 10% 할인 받을 수 있고(동백천 제외), 20인 이상 단체 예매 시에는 20% 할인이 적용된다. 각종 할인 장치와 좌석 안내도는 티켓판매처(인터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회 운영을 기조로 삼고 있는 이번 대회는 또한 온라인/웹 예매자의 100%를 모바일 입장권으로 발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 단체/현장 구매자는 지류입장권을 발급

한다. 조직위는 상대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 이용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온라인 미판매 좌석을 대회 기간 현장 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남녀 각 40개국 2천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세계 최정상급 탁구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중국의 마룽 판젠 등, 손양사, 첸멍, 프랑스의 르브랑 형제, 일본의 하리모토 남매 등등 세계탁구의 스타들이 모두 나온다. 장우진, 신유빈을 중심으로 한 한국탁구 남녀대표팀은 한국에서의 첫 세계선수권대회 트로피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도 걸려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직위 김택수 사무총장은 "체육관이 아닌 백스코에 대규모 특설경기장을 마련하느라 각 좌석 설계와 티켓 설정이 늦어졌지만, 최적의 관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면서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좌석 확보를 위해 입장권 예매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대면 방역 로봇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개발을 위해 'HD현대로보틱스'와 손잡아 지하상가 내 자율주행 플라즈마 공기정화 및 UV-CLED 바닥방역 기술실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8일,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HD현대로보틱스 본사에서 개방형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자원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과제 발굴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다.

공단은 지하상가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도시 인프라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로봇산업의 앵커기업인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바 있다.

대면 방역 로봇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공단과 HD현대로보틱스는 ▲지하상가 시설

을 활용한 자율주행 방역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제공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양 기관 피드백 제공 ▲실증완료 후 혁신제품 조달형 구매 신청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한다.

업무협약을 추진한 공단 사업지원처 담당자는 "혁신기술개발실증으로 자율주행 방역로봇 기술, 플라즈마 공기정화 기술, UVC LED 살균기술 등의 개발과 상용화, 지역상생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기에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공단의 인력, 장비, 기술을 지역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적극 개방하여 대구지역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제1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 '제1회 공공 겨울축제' 많은 관광객들이 줄이어 겨울 스포츠 축제로서 자리매김돼 내년부터는 더 발전된 축제로 성장돼도 좋다는 참가자들의 호평 쏟아져

영양군은 오는 21일까지 영양군 영양을 현리 빙상장(영양읍 현리 670 일원)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1회 영양 공공 겨울 축제를 28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당초 5일부터 2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이번 축제는 우천으로 인하여 18일부터 23일까지 임시 휴장에 따라 24일부터 28일까지 재개장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무료 스케이트장 운영 행사에서 눈썰매장, 회전 눈썰매장, 빙여냥시, 빙여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새롭게 개최한 제1회 영양 공공 겨울 축제는 행사 11일째 두 성황객 수 1만 5천 명을 돌파 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축제를 통해 영양을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휴장 기간 내 재정비를 통해 연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이번 개최되고 있는 영양 제1회 공공겨울축제는 연일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겨울 스포츠로서 자리매김돼, 내년부터는 보다더 다양한 발전된 축제로 발전음해도 좋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의성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운영 중이며 ▲세탁사업단 ▲영농사업단 ▲배송사업단 ▲시간제사업단(순무업) 등 6개 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1개소에 50여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역량과 자립 능력을 키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군청 복지과 희망복지팀(054-830-6321) 또는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054-833-1225)로 하면 된다.

정금자/기자

달성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 개장식

대구 달성군은 지난 19일,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에서 국회의원 및 초청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장한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유가읍 상리 971번지 일원)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고, 군비 185억 원을 들여 총사업비 215억 원, 연면적 5,078㎡,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수영장, 실내어린이놀이터 및 건강·문화강의실 등의 생애주기형 체육놀이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달성테크노플러스 생활체육광

장은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해 달성스포츠센터와 화석박물관을 제외한 잔여부지에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체육활동뿐만 아닌 지역축제나 행사 등을 유치하여 복합단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테크노스포츠센터 및 생활체육광장이 체육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문화행사 활동을 즐기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경주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 실시

달라지는 냉·난방비, 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전달 주낙영 경주시장, "지속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경주시는 지난 18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주관한 경로당 행복선생님 45명 대상 회계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보조금 관련 회계업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복선생님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새해 달라지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비롯해 운영비 지원내용과 경로당 보조금 사용 시 지출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은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프로그램(건강강진, 여가·취미) 코디네이터 ▲복지(위기노인 조기발굴) 코디네이터 ▲경로당(안전점검, 회계지원 및 정보제공) 코디네이터의 3중 역할을 수

행한다.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난 해 대비 25만원 증액된 연간 최대 233만원이 지급되며, 운영비는 면적별로 연간 250~280만원 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로당 운영을 기반으로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과 친목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지속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힘내라 경북 소상공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경북도-근로복지공단-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MOU 체결 1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각 40% 지원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경북도청에서 어려운 경기 속 경상북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와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이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정책과 병행하여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산재보험료 40% 지원으로 소

상공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량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량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 2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초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하여야 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상공인이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경기둔화 장기화 영향으로 지역경제의 최전선에서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힘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위하여 과감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첫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추진

봉화군은 지난 16일,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도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 8개소에 대해 별도 해제 시까지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고 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축산시설과 양돈농장은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안내하고 축협방방단 및 군 방역차량을 동원해 취약농장 및 인접도로에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전화예찰과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보, 방역소식을 문자(SMS) 등을 활용해 농장과 실시간 공유하며 보유 중인 야생동물기피제 500kg, 생석회 10톤, 소독약품 500리터, 휴대용 살균소독제 200통을 긴급배부했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양돈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고열과 식욕부진, 폐사 등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모두 39건이 확인됐으며 경기 17건, 인천 5건, 강원 16건이 발생했고 그 외 지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근수/기자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청송군, 2024년 농정운영 방향 발표

윤경희 청송군수,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이 잘 살고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2024년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을 농정운영방향으로 정하고 농림사업분야에 군예산의 24%인 1,040억원을 투입하여 희망 농업·농촌 건설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자연 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 ▲비용은 줄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시스템 구현이라는 3대 농정중점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는 향후 청송군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대 중점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재해 걱정 없는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4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347억원, 올해 신설된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포함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 마련에 지

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 및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식량작물의 생산경쟁력을 높여 나간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등 140억원, 저품질사과 시장격리 구매 8억원, 과원 미세살수장치 44억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농산물생산과 영농환경 조성에 힘을 예정이다.

또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 5억원을 투입하여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청년 농업인 발굴을 통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속 발전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계획이다.

둘째, “비용은 줄고 소득은 높은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청송군의 주 소득원인 과수생산기반 선진화를 위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83억원, 청송사과 재배시스템 혁신

을 위한 미래형 과원 조성 묘목비 33억원,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과실전문단지 생산기반 조성 24억원, 과수용 농기계지원, 과실 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등 과실품위 향상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 20억원, 채소·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에 8억원을 지원하여 사과 외 농가 수익 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미래 농업시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높은 차세대 농업시스템 구현”을 위해 직거래 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마케팅 전략을 다변화하고 유통시스템 전환을 통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 등으로 청송사과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과부가 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으로 생산비 절감 정책을 추진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가 및 소비자 대상으로 사업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국내 사과시장 유통방식의 혁신을 선도하고 판매증진에도 힘을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6억원, 산지유통 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지원 15억원, 농가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8억원, 청송군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출하 농가에 5억원을 지원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근본적인 농업시스템 혁신으로 자연재해와 대외적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열어 나가겠다”며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인이 잘 살고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관광의 초석, <DMO영덕관광살롱> 2차 회의 성료!

주민 토론으로 분과 조직 및 사업 도출해 내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군 DMO(지역관광추진조직) 구축을 위한 ‘DMO영덕관광살롱 2차 회의’를 지난 16일, 예주문화예술회관 미래창조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당일 참여자는 신청자 45명 중 신입 포함 35명으로 관광 관련 분야 주민과 관광유관단체장으로 구성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달 1차 회의의 결과를 공유하고, DMO선진지 홍성군(‘2022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 견학 결과 발표, 분과 조직, 24년도 DMO공사사업 설명과 더불어 분과별 토론이 이어졌다.

분과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 식음·숙박, 홍보·여행, 체험, 크리에이터, 영덕 관광 등 총 5개 분과가 조직되었다. 이어 전문 분과별로 따로 모여 ‘체류형 관광’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과 개인별 과제까지 구체안이 논의되었다.

난상토론 끝에 합의점에 이른 주요 사업으로는 영덕의 고유성을 반영한 체험 상품 개발, 4계절 테마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금액대별 맞춤형 관광 상품 운영, 스탬프 투어 인증을 통해 분과별로 연계할 수 있는 앱 개발,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촌집 및 빈집 발굴과 이를 활용한 촌강스 프로그램 운영, 블루로드 길동무 양성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형 사업 발굴 및 운영, 야간 투어, 축제 참여 고객의 지역 내 체험 프로그램 연계, 연간 회원권 제도 도입, 영덕 관내 체험 관련 시설 맵핑화 및 홍보, 체험 공유 공간 조성 등, 일선의 경험치에서 도출된 다채로운 사업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기 다른 분야의 참가자들이 분과를 결성하

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영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주민 주도로 구제화했다는 점이 성과로 평가받았다.

발굴된 안건은 향후 주민 간 논의와 세부화 과정을 통해 실제 사업화될 예정이며 각 분과는 향후 영덕관광DMO가 추진하는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담당자는 “DMO영덕관광살롱은 앞으로 3차, 4차 회의를 통해 분과 참여 주민의 역량 강화 교육, 선진 DMO 벤치마킹, 주민 주도형 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영덕에 체류형 관광의 기반이 하나 둘 구축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문화/기자



영주시청,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지역 경제활성화 ‘박차’

박남서 영주시장, “경기침체로 소비감소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줄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장환경개선 등 경쟁력 확보, 카드수수료, 배달료 지원 등 적극적 지원책을 추진해 경영안정을 도모 하겠다”고 밝혀

경북 영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활력 도모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시는 지역경제의 최일선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장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으로 풍기도종신시장에 총사업비 17억원(국비 10억 원, 시비 7억 원)을 투입, 74면 규모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전통시장 기능 회복과 매출액 증대 목표로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철저한 시장 방역과 주기적인 청소로 깨끗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정비·위생 방역사업’을 추진해 전통시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상인과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전통시장 특판행사/홍보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내 상인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사업 ▲시장경쟁력키지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전통시장의 성장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 내 빈점포를 활용해 점포 임차료, 환경개선, 홍보 지원 등 창업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동력 추진

시는 3교 헌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풀뿌리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매출액 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설비·홍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업 사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중요해진 만큼 소상공인들의 배달업 가입비,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을 덜고자 추진되는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할인쿠폰 발행과 가맹점 홍보를 지원하는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최초로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영주시 공공배달앱 가맹점 배달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차액 보전·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차액 보전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900억 규모의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10% 할인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풍기인삼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난해 도내 최초 건립된 ‘소공인복지지원센터’

는 인삼 관련 시제품 개발 및 시험분석 등을 지원해 풍기인삼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줄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통시장·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시책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조용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운 농업현실이지만 지역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작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히

영양군은 지난 18일(목),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와 금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입 농기계의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농가 활용도가 높고, 관내지역 농업현장에 적합한 신규기종을 선정하여 영농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동안에 이용 농가가 꾸준히 늘며, 지난해 ‘임대건수 5,112건, 대여일수 6,567일, 편도운반 1,290회, 공정선 151회, 임대세입 165,390천원’의 실

적을 거두었으며 방문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보유한 농기계는 54종 405대(동력형 242대/부착형 163대)이며, 금년에도 임대료 50% 감면을 한 시적(1.1~12.31)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철 이전까지 대여 농기계의 전반적인 수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사고예방 홍보책자와 야간반사 스티커도 상시 배부할 예정이다. 조용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어려운 농업현실이지만 지역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작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진로교육유공 표창 수상

진로탐색 활동 협력 유공 분야 우수기관 선정

부산 동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7일 교육부에서 진행된 ‘2023년 진로교육 유공자’ 진로탐색활동 협력 유공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래구진로교육지원센터는 2023년 기준 106개의 진로체험처와 6개의 인증기관 발굴로 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동래구는 2017년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준별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진로·진학 특강 및 정보 제공, 미래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개최 등 진로탐색 활성화와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김희태/기자

경북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오염도 검사 완료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에 따른 도내 오염도 검사를 완료하였다. 검사 대상은 73곳으로 미세먼지와 총부유세균·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6개 항목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의료기관·철도역사 등)과 자율관리 시설(목욕장·PC방·박물관·실내주차장·대규모 점포 등), 공중이용시설(업무시설·실내공영장·체육시설 등)로 구분된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73개 대상시설 중 어린이집 1곳, 노인요양시설 1곳에서 총부유세

균이 초과하여 개선 완료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초과한 시설에는 과태료 부과와 유지기준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조치를 하고, 필요시 공기정화 또는 환기설비 등을 개선해야 한다.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이 면제된다. 총부유세균은 실내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미생물들이 부착돼 주로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고 병원성 감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시설에서는 에어컨, 가습기 등의 주기적 세척, 욕실 등 오염 장소의 청소 및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화성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 이내 사업장은
자가측정 면제



장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친환경 건축자재와 사무용품 사용하며 에어컨과 가습기뿐만 아니라 공기정화기를 사용할 때도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환기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위해 지역 역량 결집한다!

추진단 갑진년 첫 회의 개최, 지역 산·학·연·병 전문가 모여 머리 맞대 전국 최고 수준을 넘어 글로벌 치과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논의

대구광역시시는 지난 19일(금),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대구 유치 의지와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추진단’의 새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박세호 대구시 치과의사회장, 권대근 경북대 치과병원장 및 박광범 메가젠 임플란트 대표 등 지역 치과학계, 의료계, 산업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 치과의사회 이원희 유치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대구 치과의사회가 추진한 유치 활동을 듣고, 대구정책연구원 최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의 대구 유치 타당성 정책연구 중간결과 발표 후 정장수 경제부시장 주재로 연구원 성공 유치를 위한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치의학 분야 연구 및 산업 관련 인프라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추어져 있으며 치의학 산업 발전

을 위해 치과의사회, 경북대 치과대학 및 지역 치과 기업 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우리나라 치의학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반드시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 있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컬링국가대표 선수 응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출전..

의성군은 지난 12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출전을 앞둔 컬링 혼성 4인조 믹스팀(Mixed Team) 종목 출전선수를 초청해 올림픽 출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개최되고 15개 종목 80개국 참가한다. 이번 대회 컬링종목 중 믹스팀에는 김대현·권준이(의성고 2년), 장유빈·이소원(의성여고 1년)이 대표팀으로 출전한

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표 선발전에서 팀을 이휘 6전 선승을 거두고 태극마크를 따냈다. 믹스팀 대표팀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 신화를 세운 선배 팀 김처럼 다시 한번 의성컬링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의성의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국가대표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성컬링을 알

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군민과 함께 응원하고 기원하겠다”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컬링 믹스팀 경기는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되고 대한민국 믹스팀 대표팀은 B그룹에서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와 함께 열린 경쟁을 펼친다. 정금자/기자



금정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부산 금정구는 오는 25일까지 ‘중소기업 안전+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종년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 내 기업에 산업안전, 경영, 인사, 재무 등 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적인 컨설팅 분야는 산업안전, 정책사업 신청, 경영, 인사, 노무, 세무, 회계, 금융, 홍보 등이며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김희태/기자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재운 금정구청장은 “다수의 기업이 컨설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과 발전할 기회가 될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예천군 안동·예천 상생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예천군은 지난 19일, 예천축산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예천교육 설명회」에 참석하여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4 예천교육 설명회」는 예천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및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단을 대상으로 2024년 전반적인 예천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로, 예천군은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안동시와 공동으로 안동예천 지역 상생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천군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안내하고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예천군과 안동시는 최근 경북도립대와 안동대의 글로벌 대학 30 선정과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생형 교육 발전 전략 및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향으로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시스템 강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력신장,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지역산업 연계 우수 인재 양성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천군은 이달 22일 「안동·예천 교육발전특구 협약식」을 통하여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 지역

기업 등 20여 곳과 교육발전특구 지역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이며, 내달 초 교육부 최종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은 현재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예천군을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안동시와 지역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도전하지 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금자/기자



한울3호기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른 터빈 수동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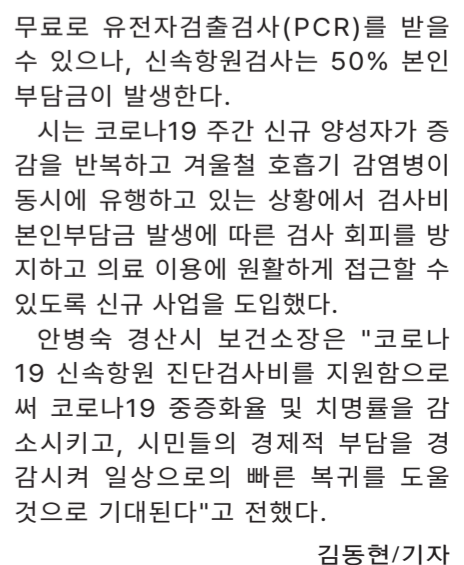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가 한울3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 kW급)는 전력거래소 요청에 따라 18일 오후 6시부터 출력을 낮추고 있으며, 19일 오전 2시경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할 예정이다. 이는 한울3호기의 주변방기와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가스절연모션에서 부분방전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한울본부는 고장부위 정비를 위해 터빈을 정지하고 정비기간 동안 원자로 출력을 약 10%로 유지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한편, 한울본부는 “해당 설비 문제로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정비가 완료되면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산시, 22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비 50% 지원

경산시는 오늘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지역 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는 5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가를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경북 신품종 포도 재배 기술 보급으로 수출 경쟁력 향상

경북농업기술원 육성 포도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재배 매뉴얼 업그레이드 다양한 글로벌(Glocal)-포도 품종 개발로 수출시장 개척, 국제적 입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원 육성 포도 신품종 '골드스위트'와 '루비스위트'의 고품질 재배 기술과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2023년에 이어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포도 신품종 '골드스위트'는 2020년에 육성된 녹황색 품종으로 노지재배 시 9월 상·중순에 수확하며, 아삭한 식감과 맛있는 꿀 향이 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루비스위트'는 8월 하순에 수확하는 조생종 적색 포도로 과피색과 수확시기가 샤인머스켓 품종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이 두 품종은 '샤인머스켓' 단일 품종의 재배면적 급증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와 특정 시기 홍수 출하로 가격이 급

락하는 것에 대응하고 품종 다양화로 농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육성 보급했다.

재배 매뉴얼은 『무핵 과실 생산』, 『수분관리』, 『생리장해 경감 기술』, 『주요 병해충 관리』 등 신품종 포도 재배에 있어 필수 기술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농가들은 품종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맞춤형 재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재배환경에 맞는 고품질 재배 기술들이 정립돼 있어 신품종 재배 농가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책자는 경상북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배포되며 신품종 포도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들도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포도 신품종 농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규격품 생산 컨설팅, (주)한국포도수출연합, 포도수출지원단 등과 협업한 전문 수출단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국내 포도 품종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해 국제적인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Glocal)-포도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MOU 체결

관광, 무역,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협력 약속 관기창 안동시장, "협약으로 협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청년정책이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에게 해외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안동시는 지난 18일(목),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사)세계한인무역협회와 관광, 무역,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제행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안동시의 관광상품(기념품)과 특산품 해외 판로 개척 ▲국제회의 및 행사 관련 안동 유치에 대한 상호 협력 ▲해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청년 해외 취업 촉진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을 시작으로 전 세계 67개국 146개의 지회에 7,000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1,000명으로 구성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이

며,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 촉진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대표적인 MICE 행사를 진행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에 관한 판로 개척 및 글로벌 창업에도 큰 힘을 쏟고 있는 최대의 해외 경제 네트워크 단체이다.

관기창 안동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관광, 경제산업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다"라며 "협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청년정책이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에게 해외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대구향토역사관 어린이와 동반 가족 체험 프로그램 '대구야, GoGo(고고) 유물과 놀자!' 및 새해 소원 적기 운영

대구향토역사관 2024년 매주 화~토요일 체험 프로그램 상설 운영 어린이와 동반 가족 대상, 대구 출토 고고유물 체험 및 새해 소원 적기 프로그램 운영



대구문화예술훈원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향토역사관은 1월부터 매주 화~토요일에 1층 제1전시실에서 '대구야, GoGo(고고) 유물과 놀자!' 체험 프로그램과 '갑진년 용의 해, 새해 소원 적기'를 운영한다.

체험은 대구향토역사관 1층 제1전시실에서 진행되며, 대구에서 출토된 고고유물을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며 탐구해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갑진년 용의 해, 새해 소원 적기'는 1층 제1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새해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전시실 벽면의 팔공산맥 일출 사진에 부착하면 되며,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관련 문의는 전화(053-606-6420)로 하면 된다.

대구향토역사관을 비롯 대시 공립 등

록박물관 3개관을 총괄하는 신형석 대구문화예술훈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작년에 3개 공립박물관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는 시민들이 '박물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교육·조사·연구·수집·보존 등 박물관 고유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향토역사관은 1997년 개관한 제2종 등록박물관으로, 대구시 공립박물관의 만형이라 할 수 있다. 시설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작년년부터 '달구벌 역사 여행의 시작, 달성공원 대구향토역사관'이란 슬로건을 새로 정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구미시,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 국비 확보 선제 대응

2025년도 국비사업 확보 전략 공동 논의 등 간담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비 확보 선제 대응을 위해 구자근, 김병식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18일~19일 이틀간 2차례 국회의원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지역의 현안 사항과 2025년 국비 신규사업 위주로 살폈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Complex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기화발전특구 지정, 구미 새마을 중앙시장 야시장 개장, (가칭)박정희 대통령 메모리얼 파크 추진,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건설 및 IC 시설 등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 위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국방용 반도체 설계·모듈화 지

원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 2025 구미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 대회, 구미 에코랜드 숲속 우드 힐링센터 조성 사업 등 지역 여건이 맞고 파급력이 높은 사업 위주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2024년 들어 예산2조원 시대를 연 김창호 구미시장은 "지역의 큰 자원으로 활용되는 대규모 국비 사업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서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접 발로 뛰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SOC 분야 1,463억 원, R&D 분야 975억 원, 문화·환경·복지 분야 584억 원, 농림수산 분야 105억 원, 기타 180억 원 등 총 7,169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김동현/기자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상주시 방문

겨울철 대설 대비 점검 및 일선 현장 관계자 격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지난 17일(수), 상주시를 방문하여 겨울철 대설 대비를 위한 제설작업 준비 사항 및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내서면 북장리 소재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대설 대비를 위한 제설차량과 장비 등 상주시 제설대책현

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적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도 26호선 등 고갯길 4개소를 결빙 취약 구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분청 및 읍면동 공무원, 공무원, 임차 기사 등 총 3,800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10회 제설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임차차량 5대를 포함한 39대의 제설차 및 염수 탱크로리 3대 등을 신속 운영 중이고, 빙설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 염수 살포 장치 4개소 및 도로 열선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연화칼슘 344톤, 소금 86톤 등을 사전 확보하여 제설작업 시 사용하고 있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대설 피해



관련 대응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절기 기간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요 지역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장충남 군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사천시 축하방문

장충남 군수,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청 설립이 교육, 산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혀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8일, 남해군내 관광, 문화, 교육, 민자유치 등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축하하기 위하여 사천시를 방문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날 박동식 사천시장을 만나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남해군은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인건 지사체 건강생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충남 군수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대도약을 기원하며, 더불어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다"며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청 설립이 교육, 산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선순환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유준/기자



경북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사업 253억원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스마트 축산 장비 지원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미래 축산 기반 조성

경북도는 농업대전환의 일환으로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사업』에 253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사/축산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장치, 사료자동급이기, 발정탐지기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용자 8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축산업 허가면적상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한도액은 축종별 규모별 상이하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20%, 용자 30%,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농식품부의 ICT

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고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컴퓨터 또는 모바일 등에서 기계장비의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면 가능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ICT 융복합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조성은 물론,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동력 절감·사양관리 최적화, 질병의 과학적인 관리 등 축사시설의 스마트 축산 도입은 농업대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시설, ICT 장비 등의 개선이 필요할 농가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군위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18일 2회기에 걸쳐 KSD나눔재단과 연계

군위군 드림스타트금융교육 실시

한 가족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초등 고학년 아동 20명에 대한 미래금융 교육과 초등 저학년 아동과 부모 20명에 대한 자녀용돈관리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습득과 긍정적인 용돈 관리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방탈출 게임과 체험형 보드게임 등을 통해 금융의 호

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저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아동은 "친구들과 용돈을 어디에 쓰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게임으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학령기 아동들이 올바른 경제개념을 배우게 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위군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경북소방본부장, 119산불특수대응단 산불 대비 태세 점검

봄철 산불조심기간 대비 24시간 산불 대응 체계 확립 체계적인 산불 대응방안 토론 등 소통의 시간 가져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지난 19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불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취임 후 관내 소방기관 중 첫 번째로 봉화군에 있는 119산불특수대응단을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전국 최초 소방중심 산불대응 전담 조직인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의 대비 태세 및 산불 진화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산불 현장을 누비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대형 산불 대비 119산불특수대응단 전략적 사전배치 등 현장 중심 산불진화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2년 울진 산불 등 재난급 대형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주요 기관반시설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고, 야간에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신설된 산불 대응 전문조직이다.

출범 후 24시간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 진화에 기여하였으며, 야간 지상 진화 활동으로 익일 일출 전 진화율 80%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2023년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32일간 캐나다 대형 산불현장에 소방긴급구호대로 파견되어 핫스팟 진화, 방화선 구축, 화점수색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내·외 산불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6년까지 종합훈련시설 등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고, 담수량 11,000리터 이상의 초대형 산불진화 헬기를 도입하는 등 산불진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 최고의 산불 전담 조직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본부장은 "지난 1년간 각종 산불 현장에서 119산불특수대응단의 활약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024년에도 경북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 22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비 50% 지원

경산시는 오늘 22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지역 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39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고 일반 의료체계에 전환됨에 따라 60세 이상인 고령층과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자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유전자검출검사(PCR)를 받을 수 있으나, 신속항원검사는 5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시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검사 회피를 방지하고 의료 이용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도입했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중증화와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 본격 가동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확산 위한 첫걸음 맨발걷기길 조성 시범사업 시작으로 전 시군 맨발걷기길 조성 박차

경북도는 맨발걷기길 조성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경상북도 맨발路道(Road) 프로젝트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생활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시책으로 맨발걷기길 인프라 확대, 범도민 맨발 걷기 확산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먼저, 맨발걷기길 인프라 확대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조성은 개소당 4억원으로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에 지원하며 개보수는 개소당 1.2억원으로 구미시, 청송군에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에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을 확대해 시군 특색에 맞는 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강변, 공원 내 맨발걷기 편의시설 조성 등 도민이 일상 속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

갈 계획이다.

한편, 범도민 맨발 걷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군에도 맨발 걷기 조례 제정을 권고하여 현재 11개 시군에서 맨발 걷기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북체육회와 시군 체육회에 맨발걷기협회를 구성하여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맨발걷기대회, 맨발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맨발걷기 수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한울1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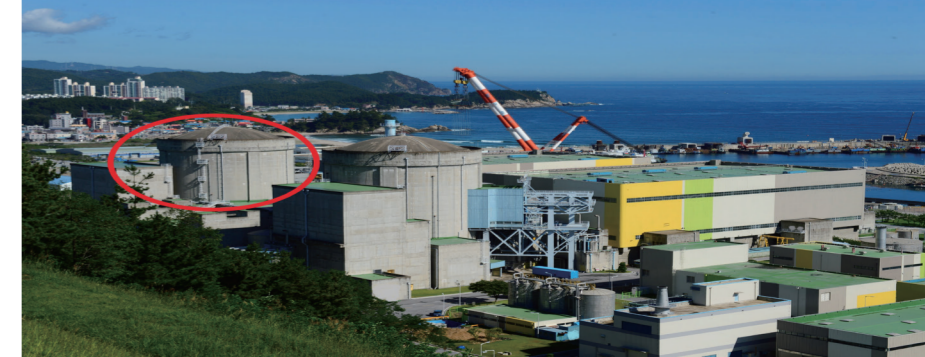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 본부는 "지난 9월 30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한 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가 1월 18일 발전을 재개하여 20일 02시 50분경 100% 출력에 도달했다" 라고 밝혔다.

한울1호기는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

사 수검을 완료하고 연료 교체,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수행하여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발전소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이사항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것이다.

윤근수/기자



청도군, 민생안정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에 총력

청도군수 주재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계획 회의 개최 김하수 청도군수,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혀

청도군은 지난 1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계획 회의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도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장, 부서장, 주무팀장 및 주요사업 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집행 제고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재정 70% 집행률 자체목표율로 설정하고, 집행 독려를 위한 수시대책회의 및 추진계획 보고, 주요 사업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 이월사업 중점 관리, 부진사업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목표액 초과 집행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재정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40여 명은 국립평창수련원에서 진행되는 2024년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겨울 캠프 '늘빛나리'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 특별프로그램 겨울 캠프 운영

정되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늘빛나리' 캠프에 참가했다.

늘빛나리 캠프는 수련원 실내 쉼터 시설을 이용한 로프코스, 터널메이저 등을 통해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비롯하여 모둠북, 응원댄스, 장기자랑, 진로 고민 나누기 등 청소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 됐으며, 참가 청소년과 지도사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동기 부여의 시간이 됐다

주중 특별프로그램 '늘빛나리' 겨울 캠프에 참가한 아카데미 학생 이OO은 "챌린지 시설을 이용한 체험을 할 때는 많이 무섭고 겁이 났지만, 친구들의 응원으로 한 번 해보고 나니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다른 활동도 열심히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중 쉼터]는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문경시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교과학습보충, 체험활동 등), 생활(차량, 급식, 면담 등), 특별운영(가족체험, 캠프, 발표회 등) 등을 연간 상시 지원하는 곳으로 40명을 정원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4, 5, 6학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동현/기자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 전북도내 취업형 인력양성 본격 시동!

군산 소재 (주)대두식품, 취업확정형 10명 업무협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19일 푸드테크 및 바이오소재 분야에 연간 배출인원 중 10명을 (주)대두식품에 취업시키는 확정형 채용 약정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함으로써 K-푸드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전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RIS 사업의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은 11월 3일 발대식 이후 12월 20일 산업체, 지자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기업설명회를 추진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생명·바이오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협업을 통해 실무에 투입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대두식품의 조성용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

한 인력 확보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두식품의 기술연구소와 농생명·바이오사업단이 협력해 기초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원광대학교 최준호 교수는 "농생명바이오분야에서 배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에 대한 정주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RIS 사업의 핵심이다."며, "우리 사업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취업 확정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 및 취업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고 말했다.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지난 9월부터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와 더불어 푸드테크 및 바이오분야의 실무인력이 양성되어 산업체에 지속 투입이 된다면 전북이 푸드테크 산업의 메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거듭나도록 도내 대학이 지역 푸드테크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 위한 국제 세미나 성료



완도군은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건강의 섬 그리고 치유의 섬 완도, 완도 치유산업 확산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완도의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완도형 치유산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을 비롯한 치유산업 관련 기관·기업, 국내외 항공, 여행, 캠핑 관련 기업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고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완도의 여건과 비교 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완도형 해양치유, 약산 해안치유의 숲·국립난대수목원 등 산림치유, 섬 테마치유를 연계한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 군수는 "완도는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 치유관광 등 치유산업의 핵심 요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독자적인 완도형 해양치유산업 모델을 구축해 해양치유산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와세다 대학교 객원 연구원 마사키(Masaki)는 '일본의 치유산업 성공 사례'에서 치유와 뷰티산업 연계를 접목한 여성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전남연구원 정문섭 박사는 대만의 치

유농업이 농업 생산성과 치유산업 활성화 동시 이 이뤄낸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네덜란드 와게닝대학교 연구원 엘링스(Elings)는 치유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사례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 및 제도 확립을 통해 치유뿐 아니라 번 아웃 근로자, 학교 퇴학자, 각종 중독 치료 환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이나 해양에서 작업치료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록 국립산림치유원 원장은 완도의 산림치유 활용 방안 전략에 대해 제안했고, 이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과장은 현재 완도 치유산업을 관리할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지원 방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유산업이 나아가길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 토론은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재수 이사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 김창길 위원장,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이옥희 팀

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생태연구소 김충곤 교수,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및 치유 프로그램 사례 소개와 더불어 완도형 치유산업이 K-치유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재수 이사장은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완도를 지속 방문할 수 있도록 완도만의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몽골의 항공사인 에어로몽골리아 관계자는 무안공항을 활용한 전남권 연계 완도형 치유관광 상품 개발과 무비자 입국 제도가 활용된다면 제주처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세미나 둘째 날 참석자들은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해수 등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영율/기자

보성군, 주요 현안사업 연계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청도, 울산, 부산 방문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

보성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2024년 지역 현안 사업 및 주요 사업 발굴을 위한 선진지 견학(벤치마킹)에 나섰다.

보성군은 청도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선진 사례 조사를 통해 보성군 특산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보성 열선루 중간 사업, 도시 재생 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견학은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농축산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직원 및 읍면장 30여 명이 함께했다.

첫째 날은 청도 한재 미나리 특화 재배단지 현장과 페터널을 활용한 청도 와인터널을 방문해 지역 농특산물 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청도읍성을 거닐며 보성 열선루 중간 사업에 접목할 만한 사례를 논의했다.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 사업장을 견학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

고 보성군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점목 방안과 도입 가능성 등을 연구했다.

둘째 날은 부산광역시의 삼덕동상(회장 문창섭)과 지역혁신 선도기업인 세진밸브공업(대표 방영혁)을 방문해 지역 내 공업단지 활성화 방안, 노후 산단 개발, 신산업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성군은 이번 선진지 견학 결과를 토대로 점목 가능한 정책을 도입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선진지 견학(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 개발에 대한 견해를 나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진지 우수사례를 적극 견학(벤치마킹)해 보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진도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 완료

기존 공중화장실...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진도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설치를 완료했다.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다중이용시

설 이용환경 개선사업으로 진도군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2,2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진도읍 철마광장의 공중화장실을 포함해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절수형 위생기구 ▲LED조명·간접조명 ▲환경친화적 칸막이 ▲어린이 전용

대변기 등을 교체·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한층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진도경찰서와 협력해 공중화장실 20개소에 불법촬영에 대비한 안심벨, 비상랜프를 설치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진도군 이재권 환경수질과장은 "이번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조성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토요일반) 모집

전국 최초 정원해설사 양성으로 새로운 정원여가문화 창출



신안군은 관광객에게 관내 정원의 스토리를 담은 양질의 정원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3기(토요일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04섬 정원과 수목 자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품격 있는 정원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신안군의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더욱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원해설사 교육을 통해 신안군의 역점 시책인 1섬 1정원 조성사업의 이행을 높이고, 주민과 전국 최초 정원수 사회협동조합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가평마다 향기 나는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원해설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월 2일까지

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읍면사무소 농산팀을 통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 달 2월 17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정원해설사 양성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공고일 이내 주소지가 신안군에 있으면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서며, 사람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관한 관심이 정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관광객들에게 품격 높은 정원해설로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27년까지 세계 최대 섬 정원 조성을 목표로 14개 읍면 30개소에 정원과 숲길을 조성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어르신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나아간다

노인일자리·목욕 이용권 확대,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집중

목포시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42,44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한 해 목포시는 지난 한 해 노인일자리, 여가복지, 맞춤형 돌봄 등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어르신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시는 올 한해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어르신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추진

지난해 시는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 134억3천9백만원을 투입해 2022년 대비 284명 증원된 3,806명의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취업알선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구인처를 관리함으로써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취업을 상담해주는 한편 구인처를 알선해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 목욕·이미용권 지원 확대

목포시의 대표 노인복지사업은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급이다. 이미용권 매출을 지난해 4분기부터 연 24대에서 연 33배 확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목욕 이용권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목포시 노인복지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2만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적극 보살피

목포시는 노인인구 증가, 가족관계 망 약화 및 사회적 단절로 고독사 등 노인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도 확대 추진해 어르신의 안부를 적극 살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지원, 안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3개소에서 4개로 늘리고, 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 충원, 사업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전년대비 노인돌봄 대상자

를 10%이상 확대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부살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 세대 내에 응급호출기, 화재, 활동감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시 119로 자동 신고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지원 세대도 1,350가구에서 1,850가구로 확대 추진했다.

시는 올해에도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를 4,187명으로 늘려 다양한 사회참여 돕고 노인 목욕·이미용권을 연 33배 확대 지급해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또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전담인력 등 30명을 증원해 약 4,000여명의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부담 덜고 건강 챙기고' 무류인공관절·백내장 의료비 지원 확대

이와 같은 지원 외에도 국가사업으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노인 무류 인공관절 최대 240만원 지원, 안 질환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지난해 57명의 어르신이 의료비 지원을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올해 1월부터는 시가 자체예산을 확보해 1년이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

신 대상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 무릎관절염과 백내장에 대한 수술 의료비를 확대 지원한다.

무류수술의 경우 양쪽 240만원, 백내장은 양쪽 40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장은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마련에 더욱 힘써 노후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중배/기자



김동연, 세계경제포럼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합의 “스마트제조업 등 3개 분야 집중 연구.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 것”

김동연 지사,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포럼 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5일 오후 3시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6년 전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논의했는데 경기도지사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8년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세계경제포럼 슈밥 회장과 만나 한국 내 4차산업혁명센터 설치와 한국 청년들의 세계경제포럼 진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인연이 있다.

경기도가 설립하려는 4차산업혁명센터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로 명칭을 잠정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센터 명칭은 기술 발전에 있어 인간 중심적 측면과 기후 위기 등 생태적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센터는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등 3개 분야에 집중하게 되는데, 특히 스타트업은 다른 18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로 경기도를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의 참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센터는 산업화 시대에 기적을 이루었던 한국이 전환 시대에 또 다른 기적을 이루고 세계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은 “경기도가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센터의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계기로 경기도와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 “오는 3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센터뿐 아니라 경

기도와 더 많은 분야에서 상시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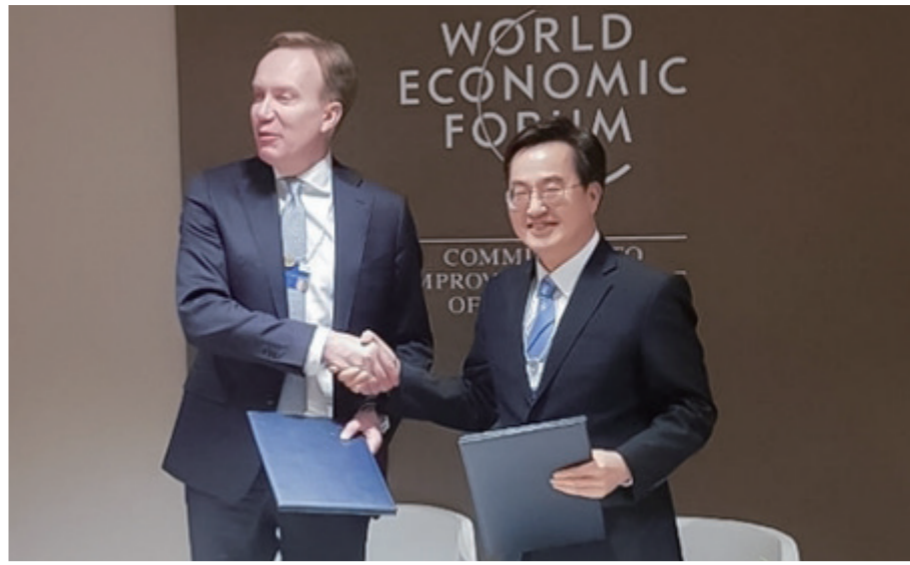
자리를 함께 한 세바스찬 벅업 세계경제포럼 총괄국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4차산업혁명센터의 경우 스마트 매뉴팩처링(첨단 제조연구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김 지사께서 미시간과 인연이 있으니 협력하는 방안도 관심을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와 미시간주의 관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4차산업혁명센터(The Cent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4IR)는 4차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과학기술의 대변혁기에 글로벌 협력과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 협력 거점 기구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노르웨이,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도는 내년 5월경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정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현정선 지부장(경기동부), 신은경 지부장(경기남부), 박성수 지부장(경기북부)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

회복지 시설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질 향상 이외에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보수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의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됐는지 여부, 보수기관의 소재지, 커리큘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교육의 목적이 사회복지사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황세주 의원, 안성소방서 삼죽전담의용소방대 시설 개선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17일 안성 지역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소 시설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는 안성시 삼죽면 면장, 민원팀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먼저 삼죽면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측은 안성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곧 사무소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안성소방서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정비 및 개선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이런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니 뿌듯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참석자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소방 안전 등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에 삼죽면 의용소방대로부터 삼죽면 의소대 대원들이 불편 없이 개선된 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기회를 마련하여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가치 제고 필요한 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서영대 조현진 교수와 (사)파주시협동조합협의회 임원과의 정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사)파주시협동조합협의회 김유미 회장과 임현주 부회장은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협동조합이 소

외되고 있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원 기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 기준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함께 일하는 자체가 행복을 느끼며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서영대 산학협력단 조현진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떤

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되는 만큼 협동조합의 생존력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통합조례로 묶여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라며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제대로 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발굴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2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엑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봉화군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054-679-6542)

꼼짝마라 고물가! 경북도 물가잡기 비상대책회의 개최

경북도「설 명절 맞이 물가안정관리 비상대책회의」개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로 서민경제 장바구니 물가 경감에 총력

경북도는 지난 19일, 이달회 경제부지사 주재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과 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동네상권 회복으로 서민 생활고를 줄이고자 「명절 맞이 물가안정관리 비상대책회의」를 경북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달회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격이 급등하는 과일, 육류 등의 명절 성수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농협, 수협 등 유관기관의 대책도 꼼꼼히 살피며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경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문어, 사과 등 제수용품 수급 조절에 초점을 두고, 농축산물 출하 확대 및 도

축장 운영 시간 연장, 비축 농산물 수매 방출 등을 통해 성수품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서민들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설 맞이 성수품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3,300억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578개소/498백만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고물가로 힘든 도민들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북지방경찰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하여 위해식품 수입, 제조유통 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 등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도 노력해 나간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경북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출항 인사,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경북 사이스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져 상인들의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무거워진 장바구니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민과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 경제 일자리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꼼꼼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보람일자리 5,600명 모집... 일·사회공헌·경력개발 기회

1차로 19일부터 학교안전·장애인지원 등 1,064명 모집, 역대 최대 규모

“35년 동안 안전관리 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 후, 이렇다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괴로웠어요. 보람일 자리를 알고 학교안전지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니, 매일 초등학교로 출근하면서 제 일상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력직 사원으로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지금, 저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 구00 님(2023년 서울시 보람일자리 ‘학교안전지원단’ 참여자)

“보람일자리로 장애인 지원사업 현장의 경험을 쌓으며, 운동재활 치료사가 되는 목표도 생겼어요. 대학원에도 진학했고요. 일주일의 대부분을 장애가 있는 딸이 치료와 육아에 할애해야 하는데, 보람일 자리는 저처럼 적절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제 2의 직업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도움을 얻는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00 님(2023년 서울시 보람일자리 ‘장애인사업지원단’ 참여자)

서울시는 올 한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헌과 경력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람일자리 5,600개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람일 자리는 퇴직자가 경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하기 좋은 서울 대표 중장년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제공 예정이다.

올해 보람일 자리는 1월부터 3월까지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장애인·노인·청소년복지시설을 비



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19일부터는 1차로 학교안전, 장애인지원 분야 등에서 1,064명을 모집한다. 이후 3월까지 교육, 지역복지, 문화, 안전, 환경 등 분야에 대한 모집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세~67세 시민이며 선발되면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6만 2,0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자들을 서울 전역에 무작위로 배치하는 방식에서 참여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 권역별(서·중·남·북부)로 활동처를 정해 출퇴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보람일자리 참여 경험이 새로운 정규 일자리 등으로 이어지도록

직무교육과 일 연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장년 직업능력개발교육 플랫폼인 ‘서울린 4050 포털’과 연계해 직업경로를 제안하고 직무별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상시 제공한다. 또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정보와 참여 기회도 공유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보람일 자리는 중장년 세대에게는 사회공헌과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선물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참여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장년 세대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미 있는 경력개발과 업의 전환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다보스 포럼에 간 경기도 김동연,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현안 논의

김동연, 18일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참석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8일 오전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경제적 분열 예방(Preventing Economic Fracture)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했다.

세계경제지도자모임은 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된 한국 인사 가운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한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에서도 김동연 지사만 초청됐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현재 직위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세계은행 근무,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이번 모임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가 의장이 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5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경제적 분열 예방(Preventing Economic Fracture)’은 취약하고 불확실한 세계 경제 상황에서 포용적이면서 통합된 글로벌시장 회복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뜻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와 회의 중 발언에 대해서는 일체 비공개됐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참가 직후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지도자모임에 이어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가 된 가운데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 열렸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밤 11시



30분(한국 시각 오전 7시 30분)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저를 초청하는 유니콘기업(거대신생기업) 초선을 만들었다”라며 세션 개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대선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스타트업 정책 방향으로 클러스터링(Clustering.공간), 네트워킹(Networking.연결),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컨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현재 산학연네트워크 프로그램인 가이아(GAIA)를 운영 중으로 스타트업 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공간과 연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국내외 3천 개 이상 스타트업과 투자자 1천 명 이상을 초청하는 대규모 국제 투자유치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세계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가이아(GAIA)는 ‘Gyeonggi Academia-Industry Alliance(경기산학협력체)’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반도체 등 6개 분야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대학, 협회, 연구소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다.

김 지사는 소개를 마친 후 “경기도로 오십시오.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라며 “창업을 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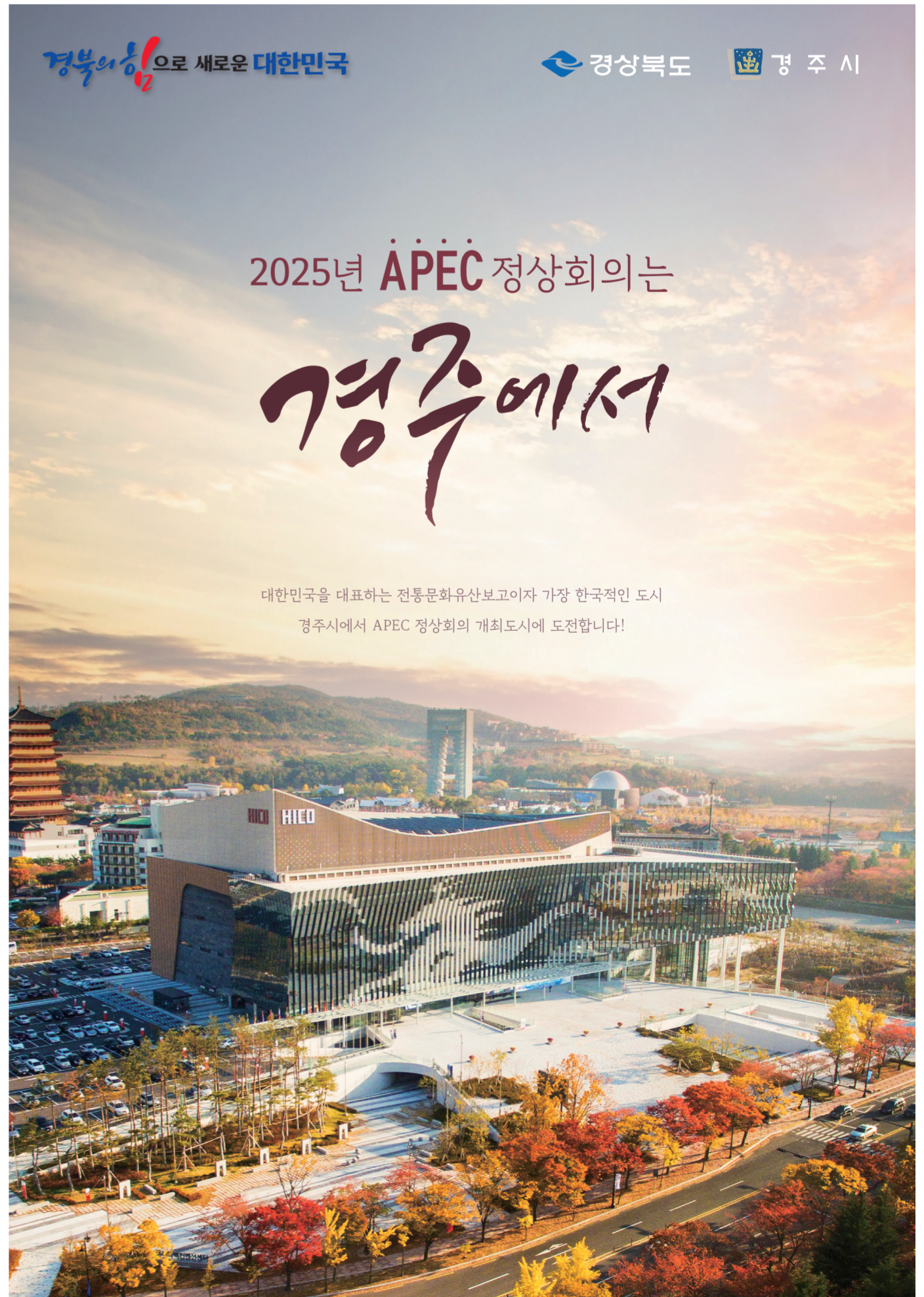
세션에는 7곳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한국이 정보화가 잘 되어 있고, 특히 경기도에 관심이 많아서 참석했다”며 “김동연 지사의 설명에 감사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نوم(Noom)의 정세주 대표는 “혈혈단신으로 처음 미국에서 와서 많이 힘들었다”며 “한국인들이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전기트럭과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회사인 아인라이드(Einride)의 로보트 팔크 대표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며 “조만간 경기도를 방문해 사업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인연을 밝힌 CEO도 있었다. 독일의 AI 의사 건강관리 앱개발 회사인 에이다헬스(AdaHealth)의 다니엘 나스라그 대표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을 잘 알고 있고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올해 중 한국을 방문해 오늘과 같은 회의를 하자”며 세션을 마무리했다.

김범상/기자



경북교육청-구미시·영주시·영양군·영덕군 간 경북미래교육지구 업무 협약 체결

경북미래교육지구, 12개 지구로 확대 운영

임종식 교육감, “앞으로도 기초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지속 운영해 지방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 도 교육청 응비관에서 경북교육청과 ▲구미시 ▲영주시 ▲영양군 ▲영덕군 간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기초지자체 공모를 통해 운영되는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부터 5개 지구(▲경주 ▲안동 ▲상주 ▲의성 ▲예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3개 지구(▲문경 ▲청송 ▲칠곡)가 추가 지정됐고, 올해 4개 지구(▲구미 ▲영주 ▲영양 ▲영덕)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12개의 경북미래교육지구가 운영된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와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중점 과제는 ▲소통과 협력의 경



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배움과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 학교 운영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밖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맞붙이 가정의 육아 부담 등이 완화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협력적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의 학생들과 주인을 위한 배움터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경북미래교육지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초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지속해서 운영해 지방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교육 설명회,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여정

예천교육지원청, 2024 예천교육 정책 선포 및 설명회 개최 이창희 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길에 불빛이 되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예천군의 교(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예천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내빈 소개, 예천교육 안내, 간담회, 업무 협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에서 2024학년도 핵심 업무 계획을 상세하게 발표하였다.

‘사고로 성장하는 나’, ‘소통으로 조화로운 우리’, ‘미래를 함께 여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예

정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구상을 함께 나누었다.

이창희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길에 불빛이 되어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천교육 설명회를 통해, 예천교육지원청은 새로운 교육 정책과 비

전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공유하였다.

이로써 지역 교육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

정금자/기자



안동교육지원청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순호 교육장,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청렴 정책 적극 동참과 청렴문화 확산 노력 결과로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시지역 부문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동교육지원청에서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 서약, 교육지원청 및 관내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역업체와 소통협의회 개최, 부패취약분야 실무팀 개선 과제 협의회 등 부패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청렴문화 주간에는 청렴문구 공모전,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전시회,

청렴콘서트, 뽕뽕 청렴오락실 등 다양한 행사 운영으로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여 유연하고 재미있는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청렴 문화를 조성했다.

이번에 우수기관에 선정된 안동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받고, 2023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제외된다.

이순호 교육장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서,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2024년 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89억 4,900만 원 추가 지원

유보통합 추진의 일환,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 임종식 교육감, “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 2024년에 5세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1인당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추가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교육청은 89억 4,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오는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5세 유아 14,915 명에게 1인당 매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2024년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추가 지원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라며 “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교육지원청 놀이로 배움이 자라는 2024 경산유아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이양균 경산교육장, “경산유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 놀이로 배움이 자라는 경산유아교육이 실현되길 바래”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금), 관내 공·사립유치원 교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놀이로 배움이 자라는 2024 경산유아교육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4 경산유아교육은 놀이로 배우는 즐거운 교실, 미래를 여는 행복교단,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교육복지, 공감 행정으로 공교육 기반 강화 4개의 추진 방향과 10개의 주요 내용 아래 32개의 추진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세출,

세입, 계약 업무 관련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원 회계 이해 연수를 실시하였다. 사립유치원 대상 회계 관련 현장 지원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K-에듀파인 운영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균 교육장은 “오늘 2024 경산유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놀이로 배움이 자라는 경산유아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싱가포르 어학연수 프로그램 실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IELTS Challenge Camp’, IELTS 테스트, ‘English Speech Contest’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1학년 재학생 30명(스마트융합과 15명, 스마트양식과 15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준별 맞춤형 프로

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어학원 프로그램에 따라 원어민 선생님과 수업한 후 모듈별로 계획을 세워 싱가포르 전역을 탐방하는 ‘ENGLISH LIVE TEST’를 수행했다.

‘ENGLISH LIVE TEST’는 학생들이 사전 조사해, 계획한 노선을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 싱가포르 전역을 탐방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현지에서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하며 실전 영어 감각을 익히고 ‘대한민국 및 K-POP 알리기’, ‘한국 해양마이스터고 소개 하기’ 등의 인터뷰 과제를 수행하며 그동안 쌓았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맘껏 발휘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마트양식과 이00 학생은 “처음에는 영어로 말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하며 자신감이 붙었다. 또 영어 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고, 스마트 융합과 조00 학생은 “이번 어학연수로 모국어의 수준함과 세계 공용어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 현지에서 소통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하고 재미있어 수십 번 넘게 인터뷰 요청을 거절당하는 상황도 즐거웠다. 값진 경험을 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어학연수에 함께한 문원일 교감은 “학생들이 하루 3만보 이상을 걷고 스쿨생 비를 맞으면서도 모듈별로 협동하여 힘든 과제를 잘 해결해 주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뻐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어학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 같고, 글로벌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타용/기자

영덕교육지원청, 2024년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 및 청렴서약식 개최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4명과 선배공무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결연식은 2023. 7. 1.자 및 2024. 1.1.자 영덕으로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결연식 후 청렴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투

명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영덕교육을 구현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선언하였다.

결연식 및 청렴서약식 이후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반부패 청렴교육, 정보보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고, 멘토-멘티 간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문화/기자



‘교육공동체와 함께 소통·공감하는’ 2024 신년 음악회 및 칠곡교육 설명회 개최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금), 칠곡향사아트센터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장, 행정실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원과 녹색어머니회,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미래교육모니터단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칠곡교육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1부는 신년 음악회, 2부는 칠곡교육 설명회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신년 음악회는 경상북도 중등음악교과 교육연구회에서 준비한 공연으로 현악상블, 국악퓨전, 성악양상블 세 개의 무대로 진행되어 참석한 칠곡 교육가족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후 2024학년도 칠곡교육 안내를 통해 올 한 해 칠곡교육을 소개하였다.

2024학년도 칠곡교육의 비전은 ‘따뜻한 배움,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도전하는 나, 소통하는 우리, 함께 펼치는 미래’를 지표로, 삶과 하나되는 교육과정, 힘이 자라는 미래교육, 희망을 주는 따뜻한 학교, 한 걸음 다가가는 교육 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하여 16개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2024학년도 특색 사업은 수학체험



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오와 뿔이랑 함께하는 웃골수학 여행’ 운영을 통해 수학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을 채워주는 학생 중심 칠곡수학 교육을 실현하고, ‘나는야, 미래형 호국 평화 리더’ 운영으로 칠곡의 호국역사와 애국의 의미를 새기는 인성과 창의가 겸비된 호국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3학년도에 이어 학생의 따뜻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시범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원아 교육장은 “2023학년도 칠곡교육을 위해 칠곡 교육가족 모두가 애써주신 덕분에 2024학년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2024학년도 칠곡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색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빛나는 칠곡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화성시의 '주민 편의 외면 행정' 더 심해졌다

약국 입구 좌,우측 조경부지 내에 돌출 통신훈과 노출된 수도미터기함 설치로 통행 불편과 안전 저해 건물주는 건축 면적을 넓게 사용 하기위해 비상도로 보행자 인도에 불법 조경부지 조성조경수 미식재 건물 출입구 우측 조경부지 내에 고압전기 배전함과 배전선 설치 및 하수관 점검구 설치와 콘크리트 포장2년 전에도 대지 공지 내에 기둥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 개선안대 의혹시민들 "공무원들이 뒷배, 경기도 감사와 수사해야" 이구동성

지방자치체는 주민 여론 수렴과 편의 증진을 우선시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이다. 이를 위해선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해야만 지방자치에 합당한 시정(市政)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리가 이러한에도 경기 화성시의 '주민 편의 외면 행정'이 개선되지 않는다 더 심해지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지 안의 공지 내 불법 시설(구조물)물 등이 놓여 있어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 석우동 41-4 동탄 한림대 병원 후문 건너편에는 '열린대학악곡'이 자리하고 있다. 이 약국 입구 좌측 조경 부지내에 유난히 돌출돼 있는 통신 맨홀과 건물 출입구 우측 조경부지 내에 노출된 수도미터기함등이 보행자 비상도로 인도상에 돌출과 노출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이 건물 입구 우측 조경부지 내에 고압전기 배전함과 배전선 설치, 하수관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부지 바닥을 조경수를 심을 수 없게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건물주는 조경면적 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 면적을 넓게 사용 하기 위해 약 3평 가량을 비상시 사람

이 대피하는 비상통로인 인도상에 불법적으로 조경부지 조성하고 조경수를 심지 않았다. 더구나 비상시 보행자도로 인도 상에 조경면적 부지를 설계도면에 설계하고, 건축 시공 처음부터 조경수를 심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준공을 화성시에서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이미 2년여 전(2021년 11월)에도 맨홀 턱(높이 40cm 가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약국 입구를 리모델링하면서 대지 안 공지에 큰 규모(길이 10m, 기둥지름 60cm, 기둥돌출폭 40cm) c자형 기둥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게 노란색으로 설치해 보행인들의 눈을 자극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당시에도 노란색 아치형 기둥이 대지 안의 공지를 점거하다시피 해 시민의 이용공간이 더욱 좁아졌고, 기둥에 부딪쳐 다칠 우려가 컸다. 비상시 보행자 대피 통로인 대지 안의 공지를 마음대로 사유 점유화해 불법구조물 설치하고 또 조경부지내에 맨홀 턱을 이유 없이 높게하고 수도미터기함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사고 우려와 통행불편을 주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업소에 대한선 의법 강력한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았다.

대지 안의 공지는 건물을 지을 때 보행환경 개선, 화재 시 소화활동 및 피난통로 등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및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건축법 제49조에서도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관리에도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 대표는 2021년 7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에 해결 촉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화성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는 현장 점검 결과라며 동년 8월 3일 "1층 측면 상 대지안의 공지 내 맨홀(통신설비)이 대지의 조경을 훼손해 설치 확인되어 행위자(건축주)에게 행정처분 시행예정"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이에 다시 8월 31일 이의 신청을 화성시에 제기했다. 화성시는 9월 6일 "이행 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1층 전면 조경 훼손된 대지에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 행위 시정 명령 처분의 사전 통지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사유지에 설치된 맨홀 턱과 같은 구조물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심한 건 2년여가 지나도록 조경부지내에 돌출된 통신맨홀과 c자형 기둥은 그대로 있고, 추가로 건물 출입구 우측 조경 부지내에 조경수를 심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미터기함을 설치하고 노출 시켜서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통행 불편,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약국은 건축법 위반 외에도 △불법 간판 설치(7개) △외부 과잉 CCTV 설치 △도로경계석 불법으로 깎은 △호객행위에 따른 약사법 등을 위반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정 단속의 손길이 제때 분명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시민 불편 외면'에 대해 시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보직만 바뀌 뒤에서 봐주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태"라며 "경기도 행정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사정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시현/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민생 우선정책 조기정착 강조

김관영 지사는 19일 간부회의에서 도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더 나은 도민의 삶, 도민이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야제와 출범식을 준비하고 밤을 새워 데이터 전환을 완료한 데 대해 "우리 도가 책임지고 하면 잘 해낼 수 있다는 성공스토리를 썼다고 생각한다.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기 바란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많은 도민들께서 뿌듯해 하고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에게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차질 없이 전북특별자치도로서 부여받은 기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치밀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지사는 민생 중심의 도정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잘사는 것, 민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실제 수혜자를 중심으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15일 근무 중 급환으로 별세한 고 박상기 팀장의 명복을 기원하며, "전 청원은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면서 서로를 살피며 함께 가자"고 청원들을 격려했다.

도 의회와 소통강화도 당부했다. 실국별 업무보고를 충실히 준비하는 동시에 그동안 도의원들의 의정 발언으

로 제안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회와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출장 결과를 공유하며 "CES2024에서 최초로 전북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이번에 주목 받은 푸드테크-에그테크 분야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8일 교육부가 발표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차전지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밀도있게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 논의, 총력 대응!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협조 요청



경상남도는 19일 오후 도정회의실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도 경제통상국장 주재로 '도-시군 경제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결정하고, 핵심 성수품에 대한 물가 관리와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사과, 소고기 등 16개 주요 성수품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시군별 '지역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물가모니터 요원, 소비자 단체 등과 가격 동향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경남 지역의 '물가 정보'를 도

누리집에 주 2회 이상 게시하여 주요 성수품에 대한 가격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선정과 지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기준 도내 418개 소인 착한가격업소를 올해에는 600여 개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군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을 상반기 내에 동결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1월 19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여 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e경남몰에서는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20% 할인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축산물의 경우 원활한 수급을 위해 평시보다 성수기 도축 두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축 검사를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성수품 특별 공급과 특판장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 수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남도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도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지만 설 명절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명절 이후에도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현/기자

2024년 새해에도 청송군의회의는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며 섬기는
청송군의의회
CheongSong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청송군의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cs.go.kr>

'웨딩 임파서블' 문상민, 로맨틱 코미디 킹 도전장 내민다! 재벌 3세 '이지한' 역으로 시청자 심장 저격 예고!

문상민이 로맨틱 코미디 킹에 도전한다.

오는 2월 26일(월) 첫 방송될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극본 박슬기, 오혜원/ 연출 권영일/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 329)은 인생 첫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남사친과 위장 결혼을 결심한 무명 여배우 나아정(전종서 분)과 이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형 바라기 예비 시동생 이지한(문상민 분)의 막장막하로맨틱 미션을 그린 드라마다.

극 중 문상민은 생계형 재벌 3세 이지한 역을 맡았다. 이지한은 LJ그룹 회장의 네 손주 중 막내 손자로 머리로 좋은 데다가 물려받을 재산도 충분하지만 가진 걸 누리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사는 인물.

대외적으로 신분을 숨긴 채 평사원으로 입사해 업무 성과를 차곡차곡 쌓으며 동료들에게 '계산 없이 따뜻한 남자'라는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대외적 이미지일 뿐, 이지한의 마음속에는 형 이도한(김도완 분)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고 싶다는 야심으로 가득 차 있는 터.

마침내 할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지만 형의 갑작스러운 결혼 선언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지한이 형의 결혼을 방해하고 야망 실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미지 메이킹에 열중하는 이지한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다. 직장 내 워크샵 장기자랑에서 숨겨왔던 춤 실력을 마음껏 발산하며 열혈 사원의 면모를 뽐내는 한편, 업무에서도 뛰어난 우수사원 표창까지 얻게 된 것.

2024년,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용마 스타 문상민의 설레는 비상이 시작될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은 2월 26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트와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타고난 기품을 뽐내고 있어 귀여운 야망꾼 이지한의 반전매력이 흥미를 돋운다.

과연 신분을 숨여가면서까지 자신이 아닌 형을 재벌 후계자로 만들려는 이유는 무엇일지, 이지한의 속셈이 궁금해진다.

그러나 하면 이지한 캐릭터를 통해 로맨틱 코미디 킹 자리를 노리는 문상민의 활약 또한 주목되고 있다.

드라마 '슈룹' 속 성남대군 역을 통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면서 미래가 기대되는 신예로 거듭난 만큼 '웨딩 임파서블'에서 보여줄 문상민의 로맨틱한 매력에 기대감이 치솟고 있다.

2024년,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용마 스타 문상민의 설레는 비상이 시작될 tvN 새 월화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은 2월 26일(월) 저녁 8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싱어게인 3' 홍이삭, 최종 우승! 소수빈 최종 2위, 이젤 최종 3위 차지! 간절하고 치열하게 달려온 10개월의 여정 종료!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 홍이삭의 우승을 끝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첫 예심부터 대망의 파이널까지 약 10개월을 달려온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이 어제(18일) 막을 내렸다.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가수들의 무대가 진한 감동을 선사한 가운데 최종 우승은 홍이삭이 차지했으며 2위에는 소수빈, 3위에는 이젤(EJel)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시청률은 널스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 7.6%, 전국 유료가구 기준 7.3%를 기록했다. 수도권 2049 남녀 타깃 시청률은 2.7%로 목요일 방송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마지막 회에서는 파이널 2차전 자유곡 라운드가 펼쳐졌다. 먼저 추승엽은 '언제나 그대 내 곁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르와 매력을 가감 없이 뽐내 심사위원 점수 781점을 획득했다.

'너에게'를 선곡한 리진(leejean)은 멜로디에 감성을 실어 보내며 귀를 사로잡았고 745점을 얻었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로 무대를 온전히 즐기며 에너지를 전파한 이젤은 773점을, '날아'를 열창하며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만든 강성희는 765점을 받았다.

이어 소수빈의 '한번만 더'는 심사위원들과 관객, 시청자들을 노래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 소수빈은 심사위원들의 극찬 속에 787점으로 단숨에 1위에 등극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신해솔은 댄서들과 함께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실력을 과시했다. 임재범에게 '신께서 해솔에게만 솔(Soul)을 주셨다'는 삼행시 극찬을 받은 신해솔은 769점을 기록했다.

마지막 주자 홍이삭은 '바람의 노래'로 무대에 올라 가슴에 울림을 안겼다. 홍이삭의 심사위원 점수는 761점이었다.

이로써 2차전 심사위원 점수 순위는 1위 소수빈, 2위 추승엽, 3위 이젤, 4위 신해솔, 5위 강성희, 6위 홍이삭, 7위 리진으로 결정됐다.

최만식/기자



더불어 '싱어게인3'가 배출한 또 다른 유명 가수 테종, 채보훈, 호림, 임지수, 김수영, 손예지와 레전드 심사위원 임재범의 스페셜 무대는 의미를 더했다.

파이널 1차전 신곡 라운드와 2차전 자유곡 라운드, 실시간 문자 투표와 온라인 투표, 사전 투표를 합성한 영광의 최종 우승자는 홍이삭이었다.

동료, 가족, 팬, 제작진 등에게 감사함을 전한 홍이삭은 "우승한 만큼 앞으로의 여정, 그 책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싱어게인3'는 유정성, 장리인, 레이나, 임강성, 김지수, 성훈 등 유명한 노래의 주인공은 물론 오랜만에 보는 얼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가수들을 조명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도전과 경쟁, 성장을 담아내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새로운 시도로 재미를 안겼다. 유명 프로듀서의 신곡으로 대결한 파이널 1차전 신곡 라운드, 관객들 앞에서 TOP10의 이름을 공개한 명명식 등을 전 시즌 사상 최초로 진행하며 신선함을 배가시켰다.

같은 뮤지션으로서, 음악 하는 선배배로서 참가자들을 대하는 심사위원들의 진심은 훈훈함을 더했다.

그중에서도 '싱어게인3'를 통해 처음 심사위원으로 데뷔한 임재범이 시그니처 극찬 "참 잘했어요"를 남기는가 하면 따뜻한 심사평으로 보는 이들도 몽클하게 만들었다.

무명 가수 77개 팀이 계속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며 유명 가수로 비상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준 JTBC '싱어게인 시즌3-무명가수전'은 긴 여운을 남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출처 : RNx(<https://www.rnx.kr>)
최만식/기자

'미스트롯3' 미스김, 썩 강자다운 고퀄리티 무대에 호평 일색! 이찬원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 극찬!

착한 미스김은 윤서령을 상대로 이태호의 '미스고'를 열창했다.

미스김은 "서령씨, 패자 부활전으로 올라오면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두 번 정도 패자 부활하셨으면 실력 인정하시고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잔인한 팩트를 날리며 짜릿한 승부를 예고했다.

'미스고'로 시작하는 첫 소절부터 쪽뽀는 보이스로 소름을 돋게 만든 미스김은 수준급의 꺾기와 깊이 있는 음색,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정통 트로트 감성을 제대로 선보였다.

이찬원을 비롯해 모든 마스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신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스김은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는 무대를 선사하며 짙은 여운을 남겼다.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레전드 무대가 나왔다", 이찬원은 "정통 트로트의 교과서", 장민호는 "미스김의 노래를 듣고 연습해도 될 정도로 '미스고'의 교과서 같다", 박칼린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 잘했다.

고음과 저음을 아우르는 멋진 약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전했다.

특히 미스김은 "마이크가 못 담은 풍부한 성량을 가지고 있다.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하지 않고 여유 있다. 완벽에 가까운 무대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거 같다"라는 장운정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미스김은 '미스트롯3' 직장부로 출연해 해남 처녀농부의 반전 가창력을 뽐내며 등장부터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1라운드 이미자의 '님이라 부르리까'에 이어 2라운드 팀미션에서 소유미 '평생직장'까지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승가인 났을 때의 전율이 돌았다"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한편 미스김이 출연 중인 '미스트롯3'는 매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가수 미스김이 정통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줬다.

미스김은 지난 18일 밤 방송된 TV조선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트롯3'에 출연해 무대를 꾸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3라운드 1:1 데스크매치가 펼쳐졌다.

고급스러운 핑크 드레스로 귀티를 장

영양
들여다보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의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물, 빛, 맛, 숲, 심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포도, 심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곡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곽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발해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양공룡발자국전시관, 흥림산자연유형림, 양양산생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culture, etc.

템페스트,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2관왕... "해외 각국에서 영향력 펼칠 것"

그림 템페스트(TEMPEST)가 2024년을 이끌어갈 기대주로 선정됐다.

템페스트(한빈, 형섭, 혁, 은찬, 루, 화랑, 태래)는 최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2024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아이돌(한국·베트남)' 부문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한해를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시상식이다.

지난해 열린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내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아이돌(신인)' 부문을 수상한 템페스트는 올해는 2관왕의 영예

를 안으며 2년 연속 수상의 존재감을 빛냈다.

이날 템페스트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팬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랑과 2024년을 멋지게 이끌어 가는 템페스트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베트남 부문도 수상하게 됐는데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방문했던 때처럼 또 한 번 찾아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또 해외 각국에 방문해 템페스트의 선한 영향력을 알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템페스트는 지난해 베트남에서 개최된 '호조 뮤직 페스티벌(HOZO Music Festival)'에 참여했다. 특히 입국과 동시에 5천여 명의 현지 팬들

이 공향에 모여들어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최근에는 후지TV 애니메이션 '도주중 그레이트 미션' 엔딩 테마곡 'Baddest Behavior(배디스트 비헤이비어)'에 참여해 일본 프리 데뷔의 문을 열었다.

최만식/기자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 울진의 밤밤곡곡

울진의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명소



푸른 바다, 청록의 숲!
햇살 아래 만나는 울진 여행자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활기와 생생함이 넘치는 그 시간을 지나고, 해가 그 모습을 감추고 나면, 울진의 또 다른 매력이 빛을 발한다. 때로는 고즈적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관광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울진군의 밤...으로 여행을 떠나본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죽변 ~
일출은 동해, 일몰은 서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겨울 죽변을 꼭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죽변에서는 바다 위로 뜨는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은 기본이요, 바다를 물들이는 붉은 노을과 함께 일몰까지 감상할 수 있다. 동해 일출이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장관. 죽변 바닷가 어디라도 일출을 감상하기에는 손색이 없다. 그렇게 일출을 즐기다 죽변 해안 스카이라이프, 폭풍속으로 세트장, 하트 해변, 죽변항 수산물 시장 등등 인근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훌쩍 오후 시간. 해가 지려는 기운이 느껴지면 죽변 등대공원으로 향하면...등대공원 뒤쪽 바다를 지나 저 멀리 능선으로 기고 있는 태양과 조그맣게 바다로 어둠이 내리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출과 일몰의 가장 베스트 샷을 볼 수 있는 건 1~2월 이즈음이다.

죽변에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밤의 추억은 ~~~~~ 울진 이곳에서 ~~~~ 코끝을 찡하게 하는 겨울밤의 공기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

다면 울진 연호공원과 은어다리가 적격이다. 도심 속에 위치한 연호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겨울밤 산책을 하기에도 딱 좋은 코스이다.

공원을 둘러 싸고 있는 산책로에는 조명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 밤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거기에 월연정과 월연정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락교에 조명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인생샷 각이 나온다.

연호공원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야경을 보여 준다면,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은어다리는 이제까지 볼 수 없던 색다른 밤의 풍경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은어다리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남대천에 자리한 보도교로 커다란 은어 두마리가 왕피천 하구를 건너 통해 바다로 가는 형상으로 다리를 지고 있다. 경북의 야경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던 은어다리의 야경은..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다.

민물과 바다의 만남,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은어,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밤. 이 모든 것이 갖춰져진 은어다리의 야경은 눈에 마음에 그리고 사진에 담기에 더할나위 없다.

연호공원과 은어다리에서 특별한 밤의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제는 좀 더 신비로운 분위기의 야경을 만나보자!
신비의 세계속으로 ~~~ 후포

울진의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한 후포는 해마다 울진대교와 붉은대교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대교나 후포항구만 알고 있다면 어둠이 깊은 후포항을 꼭! 찾아가 보기를 추천한다.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매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무엇보다... 후포의 야경은 한마디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후포항을 내려다보는 등기산에는 세계의 유명 등대가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신석기 유적관 등이 있어 아기자기한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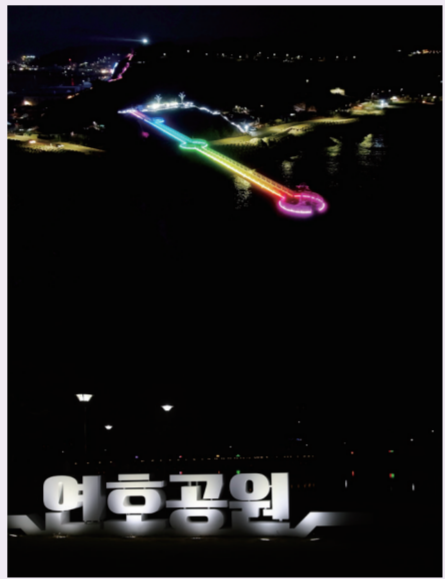
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밤...
칠흙같은 어둠속에 빛나는 등대들과 반짝이는 조명이 등기산공원을 번신시킨다. 낮의 등기산 공원은 뭔가 청순가련의 느낌이라면 어둠이 내리고 조명이 밝혀진 등기산은 성숙하고 노련함과 뒤편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등기산 야경의 백미는 산중턱에서 내려다 보는 등기산스카이라이프의 모습이다. 환한 햇살 아래에서는 바다위를 걷는 짜릿함을 선물했던 스카이라이프는 밤이 되면서 화려한 조명으로 자태를 뽐낸다.

야간에는 직접 스카이라이프를 걸을 수는 없지만, 검은 바다위를 뻗어 나가는 형형색색의 조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스카이라이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여행을 만날 수 있는 곳 울진 울진에서의 밤은 그 어떤 여행보다 아름답다~~

지금 떠나라!! 울진의 밤밤곡곡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장문화/기자



연호공원

영동군, 달콤존든한 매력가득 영동곶감축제 '팡파르'

19일~21일 3일간 개최, 지역경제활성화 사활



주황빛 영동곶감의 매력과 푸근한 고향의 정이 가득한 '2024 영동곶감축제' 영동하상주차장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영동군이 주최하고 (재)영동축제관광재단·영동곶감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곶감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전시·문화행사,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인다.

지난간 한해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희망가득한 새해를 설계하는 감동과 낭만의 겨울 축제다.

올해는 '용·감한 영동'의 슬로건 아래, 곶감생산에 일가견이 있는 34개 농가와 22개의 특산물 농가가 참여해 깊은 산골의 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더해 만들어진 품질 좋은 곶감과 특산물들을 선보인다.

축제 첫날인 19일에는 개장식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난계국악단의 축하공연, △김다현 △양지연 △한동근 △손순수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둘째날 20일에는 축제 성공개최를 지원하는 MBC충북한마음콘서트

가 열리며, △이찬원 △설하운 △이찬성 △영지 등이 출연해 군민과 함께하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날 21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 열리고, △최은혜 노래교실 △버드리의 폐막 축하공연을 끝으로 축제를 마무리한다.

곶감 외에도 △군밤 △군고구마 △가래떡 굶기 등 추억의 먹거리와 청정 자연 머금은 △와인 △호두 △임산물 등 영동의 특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또한 올해 영동곶감축제는 △뽕썰매장 △전통놀이 체험 △어린이 뮤지컬 △빙어잡이 △저자전거 체험 등 가족단위 즐길거리와 △곶감 레스토랑 운영 △보부상 경매쇼 등의 이벤트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재단은 2024 영동곶감축제는 장소가 하상주차장을 변경된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에 사활을 걸었다.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용·감한 청룡금을 찾아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행사는 영동군 어디서나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축제장에 있는 추첨함에 넣고, 축제기간 중 매일 15시에 3명을 추첨해 금 한돈씩, 총 3일간 9돈의 청룡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축제장 내 곶감 등 농·특산물 5만원 이상 구입한 관광객들에게 영동사랑상품권(5천원권)과 지역내 전통시장상인회 쿠폰(5천원권), 영동행사 참여회까지,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이번 영동곶감축제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며, 청정 자연의 겨울철 건강 먹거리 감고를 영동 곶감의 진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유쾌한 축제를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았다"며 "따스한 햇살이 더해 만들어진 달콤 존든하고 품질 좋은 영동곶감과 함께 따뜻한 행복의 새해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동곶감축제는 영동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김원호/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곶감축제 즐기며 영동군민들과 소통

충북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 민생현장 방문에 나선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영동곶감축제에 맞춰 19일 영동군을 찾았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영동군민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영동군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첫 방문 일정으로 이날 오전 노근리평화공원을 방문했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희생된 피란민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국비 191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김영환 지사는 공원 주요 시설을 방문해 현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이어 양해찬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장, 정구도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인권교육 장소로서의 활용방안, 노근리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후에는 영동지역 서민경제의 뿌리인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폈으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며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에 앞장섰다. 이후에는 심천면으로 자리를 옮겨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무대가 될 국악체험촌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곳에서 김영환 지사는 백승원 영동문화원장, 김명동 영동예총회장, 조기옥 영동삼여회 회장, 양문규 시인, 조건희 한국문인화협회 영동군지부 사무국장 등을 만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후에는 인근의 9남매를 양육하는 다동이 가정을 찾아 가족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여러 출산 정책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마지막 일정으로 김영환 지사는 2024 영동곶감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영동곶감의 매력을 즐기며 도민, 관광객들과 함께 소통 및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많은 지역주민

들과 주요 사회단체장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도정 정책 방향의 기반을 다졌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영동군은 물론 충청북도는 아직도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충북도와 함께 문화, 경제, 교통 등 지역경제를 뛰어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상생과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이 민생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제천을 시작으로 오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김영환도지사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 도약하는 지역경제
- 감성충만 관광문화
- 시민행복 맞춤형지
- 인재양성 미래교육
-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제31회 태백산 눈축제, 31회를 맞아 31가지 체험프로그램이 가득



겨울 특별시 태백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가 불과 5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31회를 맞이하는 태백산 눈축제에 31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눈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서는 대형 눈 조각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더 풍성한 겨울축제를 즐길 수 있다.

태백산 눈축제의 주요 행사장은 당골광장, 야생화공원, 테마공원, 아래 광장 이렇게 네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당골광장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조성한 대형 눈 조각 20여 점과 대형 이글루 등이 설치되며, 야생화공원에는 소망 메시지 월이, 테마공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키즈파크 등이 설치되는 등 제31회 태백산 눈축제를 맞이한 31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태백시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및 용연동굴이 휴관 없이 정상 운영되어 태백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눈축제와 더불어 태백의 대표 관광지들을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제31회 태백산 눈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문화재단으로 문의하거나, 태백산 눈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유상근/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최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